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3343호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뉴스]
하루 아침에
실직?
03

Economy

코스피 1943.02 (-30.27)
코스닥 659.20 (-11.32)
금리(국고채 3년) 1.75 (-0.03)
환율(원·달러) 1172.30 (+6.30)

'11·13 파리 테러'에

패닉 없었지만… 한숨 내뱉는 韓 경제

美 금리인상 우려 속 악재 겹쳐
원·달러 환율 급등·코스피 폭락
전문가 "단기 충격은 불가피"

대테러 경계 강화된 인천공항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천국제공항에 대테러 대비 경계·경비가 강화된 16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경찰이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터키로 집결한 지 이틀째인 16일.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폭탄 테러의 파편이 한국 증시를 강타했다.

이날 국내 증권사 영업장에서는 전화통에 불이 났다. 유럽지역에 한정될 것 같던 테러 충격이 아시아 금융시장으로 퍼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맥없이 무너졌고 투자자들 문의가 빗발친 것이다.

A증권사 객장 한 관계자는 16일 "장중 외국인의 매매동향과 개별 주가 상황을 초단위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이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판에 세계 경제 둔화 우려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도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10.3원 폭등(원화값 급락)했다.

◆파리발 후폭풍에 금융시장 휘청

한동안 평온했던 증시에 한겨울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30.27포인트(1.53%) 폭락한 1943.02에 마감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우려에 더해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터진 연쇄 테러가 충격으로 이어진 것.

시장에서는 2001년 '뉴욕 9·11 사태'에 비유하는 시각이 적잖다. 당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주일 동안 14%나 폭락했다.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60일 동안 하락이 이어졌다. 그러나 두달 후 주가는 9·11 사태 전보다 올랐다.

2001년 9·11테러 이튿날 정오에 지연 개장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64.97포인트(12.01%) 폭락한 475.60으로 마감했다. 사상 최대 하락 폭이었다. 그러나 13일 곧바로 4.97% 반등해 큰 충격은 없었다.

스페인 열차 테러(204년 3월11일), 보스턴 마라톤 테러(2013년 4월12일) 때도 세계증시는 2~3일간 2% 하락하는데 그쳤다. 2005년 런던 테러 때는 런던과 유럽시장이 일시적 패닉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0.3%)해 세계주가 하락폭은 0.4%로 제한적이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파리 테러가 펀더멘털(기초여건) 변수로 퍼진다면 다르게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기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닌 만큼 무리해서 투자 관점이나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방국가 주요 테러 이후 국별 시장 반응〉

일시	사건	발생당일 금융시장 반응	회복 소요일
2001.09.11	미국 9·11테러	주가 -7.1%(9월17일), 금리 -19bp(13일)	주가 42일, 금리 47일
2004.03.11	스페인 열차 테러	주가 -2.2%(3월11일), 금리 -2bp(11일)	주가 20일, 금리 4일
2005.07.07	영국 런던 테러	주가 -1.4%(7월7일), 금리 -9bp(7일)	주가 2일, 금리 3일
2013.04.15	미국 보스턴 테러	주가 -1.8%(4월15일), 금리 -4bp(15일)	주가 15일, 금리 2일

자료=블룸버그, *세계지수는 최대 30일 내외 회복, 금리는 10년물 국채 기준

걱정은 테러가 유럽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1위의 관광대국인 프랑스는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7.5%나 되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이 0.3%에 그친 3·4분기 유로존(유로화사용 19개국) 전체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최대 교역상대국 중 하나인 유럽이 흔들릴 경우 한국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란 점도 불안요인이다. 중국의 '기침' 한번에 한국경제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 여기에 미국까지 12월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한국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도 충격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0.3원 오른 1174.1원에 마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되면서 미 국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통화 측면에서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와 일본 엔화 강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의 지위를 가진 원화채권에는 금리 하락(채권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 충격은 불가피, 영향은 제한적

이번 파리 테러와 관련해 선뜻 명쾌한 전망을 내놓은 사람과 기관은 없다.

최고경영자(CEO)와 세계적 정치경제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은 "경기회복세 둔화와 정치적 대립 속에 이번 테러는 유럽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 우려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JP모간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과 이번 테러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달러 강세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요인이다. 실제 외국인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2500억원 넘게 순매도 하는 등 5거래일 연속 한국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AMP캐피탈은 "경제충격이나 시장불안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과거 사례로 보아 시장은 단기내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반기문 방북 추진… 술렁이는 여의도

'차기대권 대망론' 조짐에 긴장
여야 "한반도 정세 도움 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북한 방문 소식에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16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반 총장에 대한 차기대권 대망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반 총장의 방북은 북핵 문제 해결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다른 각도에서 이목이 쏠린 상태다. '대통령 반기문-총리 최경환' 시나리오의 시발점인 친박계발 개헌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반 총장의 방북에 국내 정치 상황을 대입시킨 것이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알리며 대권설에 한 차례 불을 지핀 바 있다.

비록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반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타전됐다. 반 총장의 임기가 대선을 1년 앞둔 내년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성사가 유력한 이번 방북이 국내외에 '외교 대통령' 후보로 각인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5일 오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프레스 콘퍼런스를 갖고 파리 테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 총장의 대권주자설은 여권, 특히 친박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론' 파문이 발생한 와중에서 뚜렷한 차기 대권 주자의 부재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권의 대항마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반기문 대권설'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김 대표 측의 반발을 사 가뜩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 합의가 어려운 가운데 당내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생에 방점을 둔 새누리당이 차기 권력을 놓고 집안 싸움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여권 의원들이 반 총장의 방북이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확대 해석을 경계, 거리두기에 나선 까닭이다.

반 총장의 출마가 '설(說)'에 그칠 거란 시각도 적지 않다.

국내 정치에 염증을 느낀 데 대한 반대급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선 후로로서 현미경 검증을 버텨낼 지도 의문이다. 이미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반 총장의 조카가 경남기업과 연루, 재판을 받으면서 도덕성에 생채기가 난 상황이다.

확대해석을 경계하긴 야권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이 공식 발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반기문 대망론'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북 결정이어서 주목된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에 국내 정치 문제를 개입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일축했다.

한편 반 총장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며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연미란 기자 actor@

한줄 News

정치 사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북한 방문 소식에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16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반 총장에 대한 차기대권 대망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 386조원 가량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통 끝에 16일 활동을 개시했다.

▲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논의에 돌입한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제

▲ 파리 테러 이틀 뒤 **프랑스**가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IS와의 전쟁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파리 테러의 여파로 러시아인들의 테러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된 상태다. 프랑스에서는 추가 테러 경고가 나왔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증권

▲ **KB금융지주**는 고객정보 유출사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등으로 지난해 가장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이순신 장군의 위기 관리 능력을 그려낸 '명량'이 우리 사회를 흔들었듯 은행 등 금융지주사에도 리더십과 함께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 경쟁력 강화 KEB하나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가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상생** 선언'을 채택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약을 통해 옛 외환은행 출신 전 직원은 올 급여 인상분(2.4%)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 연말 아파트 분양 시장에 **한화건설**의 '킨텍스 꿈에그린', GS건설의 '에코시티자이' 등 역세권과 숲을 갖춘 더블 프리미엄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

▲ 네이버와 카카오가 맞춤형 타게팅을 통한 **광고 플랫폼** 강화에 나선다. 네이버는 라인의 광고 상품을 늘리고 타게팅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맞춤형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다.

▲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론칭과 고성능 브랜드 라인 'N' 등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 올해 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하는 등 6년여 만의 수출쇼크에도 두 자리 수 대박행진을 이어가는 업종들이 있다. 유형별로 묶어보니 K-뷰티, K-푸드, K-전자 3가지가 꼽혔다.

유통 생활

▲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최대 할인판매기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해외직구족을 겨냥한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그룹측은 이번 고소장 제출을 신총괄회장의 의지가 아닌 SDJ코퍼레이션이 경영상 혼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 사업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면세점사업자**들이 승자와 패자에 관계없이 고용딜레마에 빠졌다. 사업권을 빼앗긴 기업은 기존 면세점 직원의 고용승계를 고민하고 있고 새롭게 사업권을 따낸 기업들은 기존 사업자가 채용했던 직원들을 승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쪽지예산, 이번엔 사라질까?

여야, 의원 순환 '변칙운용' 지각 출범 놓고 신경전도
김재경 위원장, 개회 직후 "집단 민원성 문자 자제를"

김재경(왼쪽) 예결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86조원 가량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통 끝에 16일 활동을 개시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데 이어 소위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애초 지난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소위가 일주일가량 늦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소위 위원을 8명(김재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에 이정현 의원을 추가하려던 계획을 접으면서 8명만 소위에 참여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가 적은 강원과 호남은 번갈아 가면서 (소위 위원을) 해 왔다"면서도 "(소위가) 가동되도록 일단 내가 양보를 하고,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중간에 사·보임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춰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 가운데 7명만 참여시키면서 여야 합쳐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의원이 빠졌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7명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여야의 이 같은 '변칙 운용'으로 이날 오전 11시 가까스로 '지각 출범'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소위가 개회하자마자 "소위 시작되면 무더기 민원성 문자메시지가 수십건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온다"며 "본인이 바라는 결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집단 민원성 문자는 자제해달라"고 '쪽지예산' 자제를 당부했다.

여야는 소위의 지각 출범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는 "소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야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2~13일 꼬박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안민석 간사는 "문제가 꼬이면 야당 탓으로 돌리는 묘한 습관이 있다. 여야 모두 실타래가 꼬이게 한 데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노사정 '비정규 대책' 합의 불발… 공은 국회로

'합의 파기 논란' 갈등
국회 합의도 어려울 듯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13만명, 경찰 추산 6만8000명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 /연미란 기자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논의에 돌입한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발의 강행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 혼란이 맞물려 노동개혁이 추진을 잃고 표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노사정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쟁점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는 이날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위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은 사실상 백지 상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5대 법안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이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계약 갱신횟수 제한 △노조 차별신청대리권 여부 등이 여야 쟁점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 지난달 13일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한 '2기 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갈등의 골을 메우지는 못했다.

정치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 예산 심사 등의 현안을 놓고 노동개혁 추진에 필요한 동력 제공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김장재료 원산지 허위 표기, 신고땐 포상금 5000만원

관세청,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김치를 포함한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관련 민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와 천일염, 고추, 젓갈 등 양념류와 그 외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된 저가의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미표시·허위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한후 시정조치 후 반출하도록 한다.

또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성현 기자 minus@

하루 아침에 실직 걱정… 애타는 잠실롯데 직원들

〈면세점〉

면세점입찰 나란히 탈락했지만
워커힐, 신세계서 통큰 고용승계
잠실 롯데 물먹인 두산은 '침묵'

신세계DF가 워커힐 면세점 전직원 고용승계를 약속한 반면 두산은 잠실 롯데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확실한 입장 발표가 없어 두 면세점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열린 면세점 서비스 인력 채용 박람회. /연합뉴스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이하 잠실 롯데)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이하 워커힐)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잠실 롯데와 워커힐은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면세점 사업을 접어야하는 두 회사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배경은 바로 '고용 승계' 때문이다.

16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워커힐 면세점 직원들은 신세계DF가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한 반면 잠실 롯데는 인수 주체인 두산이 고용에 대한 확실한 입장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이 이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과 협력, 용역업체 직원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잠실롯데 직원 중 1300여명을 제외한 2000명 가량이 비정규직과 협력·용역업체 소속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승계 여부가 면세점 선정 후폭풍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업권을 따낸 기업과 잃은 기업 모두가 고용승계 해법 찾기가 한창이다.

◆신세계 통큰 고용 승계에 두산도 고심

두번째 도전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 입성에 성공한 신세계는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 직원 900여 명 전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신세계는 회현동 본점에 내년 매출 1조 5000억원을 목표로 대규모 면세사업장을 조성 중이다. 기존 워커힐면세점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세계가 워커힐 직원의 고용보장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두산이다. 업계는 동대문 두산타워에 조성하는 면세점이 잠실 면세점의 직원들을 수용할만한 규모인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두산 측은 잠실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직원을 승계할 것인지에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두산 관계자는 "일단 잠실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앞서 면세점 사업 전략을 발표하면서도 언급한 내용"이라며 "다만 그 방법이 문제다. 모든 직원을 두산타워 면세점에서 받을 수도 없고 롯데와 어떤 협약이 돼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두산 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역시 잠실 면세점 직원의 거취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금 그룹 차원에서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직접 고용 1300여 명은 기존 매장을 늘리든지 타 매장으로 보내든지 해서 고용을 보장하겠지만 용역직원과 납품업체들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며 "면세점 입찰에서 떨어졌을 뿐이지만 직원들을 길거리에 내몰았다는 오명을 쓰게 될 상황이다. 기존 매장을 확장해 고용보장을 하려해도 이 또한 허가제라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5년 갱신 면세사업 노동계도 회의적

노동계 측에서도 5년 갱신 면세사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면세사업 규제를 위해 도입된 관세법에 따라 5년마다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법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지 못할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면세사업은 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번 5년마다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또 이직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쉬게 된다"며 "정부가 5년 갱신 법만 내놓을 게 아니라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내놨어야 했다. (면세점 직원)그들 모두가 각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매번 이런 불안에 떨어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롯데면세점과 두산타워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책임성이 결여된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할 것이다. 롯데가 면세점 직원들을 위해 현명한 방안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5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롯데호텔을 방문하며 기자들에게 ""협력업체 포함 3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신격호, 7개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고소
롯데그룹 "업무보고 의사 여러번 전달"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감염 증상으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5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퇴원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의 형제 간 법정공방이 부자 간으로 번졌다.

SDJ코퍼레이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우는 고소 이유로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가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신 총괄회장의 적정한 업무 판단과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7개 계열사 대표이사가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룹과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SDJ와 두우의 고소장 제출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고소장 제출을 신총괄회장의 의지라기보다 SDJ코퍼레이션이 경영상 혼란을 주기 위해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롯데 계열사들은 언제든 총괄회장 보고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미 업무보고 의사를 여러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에서 이원준, 송용덕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대표이사로 있다. 또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의 등기이사, 롯데칠성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지상군 투입 발뺀 美… 佛, 보복 공습에서 그치나

프랑스, 항공기 12대 동원 'IS의 심장' 시리아 락까 공습
전문가 "정치적 상징 행위일 뿐… 지상군 단독파병 무리"

지난 15일 프랑스는 공군 전투기 10대를 포함, 모두 12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이슬람국가(IS)의 수도라는 시리아의 라까를 공습했다. /연합뉴스

파리 테러 이틀 뒤 프랑스가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지만 보복이라는 정치적 상징일 뿐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과연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공습에 나서기 전 "모든 수단을 써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프랑스의 발이 묶이게 됐다.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프랑스의 군사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전투기 10대를 포함한 항공기 12대를 동원해 시리아의 락까를 공습했다. 락까는 IS가 자신들의 수도라고 부르는 곳이다. 프랑스 국방부의 미카엘 소리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S 사령부와 신병 모집소, 탄약고를 첫 목표물로 파괴했고 이어 테러리스트 훈련소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IS는 "공습 이전에 락까를 벗어났다"며 "사상자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락까는 IS가 점령한 이후 내부 사정이 차단된 상태다. 실제 프랑스의 공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을 두고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정치적 상징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퇴역 장성 출신의 CNN 군사 애널리스트는 "공습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다. 그 메시지는 프랑스 내부를 향한 것"이라며 "프랑스는 (테러 공격을 당했으니) 무언가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파리 테러를 프랑스에 대한 전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IS 집단 야만인들에게 자비롭지 않을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 어디에서라도 모든 수단을 써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방이 IS와 벌이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 동안 미국 주도의 전쟁 전략은 '봉쇄'였다. 지상군 투입을 배제한 채 공습을 통해 IS의 세력 확장을 일단 막겠다는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로 직후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프랑스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해 전략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 중인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방송에 출연해 "IS 세력을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에 봉쇄하는 목표로 하는 현행 전략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IS를 겨냥한 공습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프랑스가 IS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어깨를 나란히 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봉쇄 전략을 유지한 채 공습을 강화하겠다는 결론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프랑스의 군사력은 단독으로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벅차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프랑스의 마티유 기데르 툴루즈대 교수는 "(프랑스의 응징은) 자원이 유한한 현실을 고려하면 제한적인 수단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해외 병력은 아프리카에 1만여 명이 배치돼 있다. 이 중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격퇴를 위한 바르칸 작전에 3500여 병력이 핵심이지만 전략적 이유로 시리아나 이라크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르칸 작전 지역은 프랑스의 핵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우라늄 광산이 산재돼 있는 곳이다.

프랑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공습의 강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전직 고위 외교관의 말을 빌려 프랑스가 전투기 파견을 늘려 IS에 대한 공습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는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 공습을 위해 배치한 기존 공군 전력 외에 핵항공모함인 샤를 드골 전단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다. 샤를 드골 호는 만재 배수량 4만 2000t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핵 항모다. 라팔 M, 슈페르 에탕다르 등 전투기와 미국제 E-2 호크 아이 조기경보기 등 4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에펠탑과 원' 형상 확산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만행 속에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도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장 줄리앙(32)이 제작한 이 도안은 원과 에펠탑 모양을 결합시킨 것으로 '파리에 평화를'(Peace for Paris) 이라는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발물 허위신고 빗발… 긴장하는 모스크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러시아에서는 폭발물 허위신고 전화가 빗발치는 등 테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파리 테러의 범인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목표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에선 최근 며칠 사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 전화가 잇따라 걸려 오면서 방문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현지시간) 새벽 모스크바 동쪽 기차역 '쿠르스키 복잘'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익명의 신고 전화가 경찰로 걸려왔다. 보안당국은 즉각 역사 내에 있던 약 500명의 여행객을 긴급 대피시키고 폭발물탐지팀을 들여보내 역사를 샅샅이 뒤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전날 밤에는 모스크바 북쪽의 대형 호텔인 '코스모스'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안당국은 약 900명의 숙박객들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호텔 내에서 열리고 있던 연주회도 중단됐다. 하지만 호텔에서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낮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의 대형 쇼핑몰 '젬추즈나야 플라자'로도 역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와 직원과 방문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 전화는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

러시아는 파리 테러 직후 자국 내 대테러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공항, 역사,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보안 점검을 강화했다. 러시아에선 몇년 전까지도 체첸 등 남부 캅카스 지역에 본거지를 둔 이슬람 반군들이 모스크바의 공항과 역사, 지하철 등에서 여러차례 테러를 자행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전례가 있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송병형 기자

일상 돌아간 파리… 관광명소 일제 재개장

에펠탑·루브르 박물관 열기로
항공·철도 등 운송수단 정상화

16일(현지시간) 아침 프랑스 파리 출근자들이 사흘전 연쇄테러 현장 중 한 곳인 샤론가(街) '벨 에 퀴프' 카페 앞에 쌓인 희생자 추모 꽃다발 곁을 지나고 있다. 프랑스는 테러 발생 이후 사흘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슬픔을 공유했지만, 이날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을 재개방하고 참혹한 테러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테러 직후 문을 닫았던 관광명소들을 다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문화부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을 다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와 운동 시설, 공원도 이날부터 정상운영하며 파리 증권거래소는 추가 보안조치를 거쳐 평소와 같이 개장할 계획이다. 디즈니랜드는 18일부터 문을 연다.

테러 위협으로 한때 취소까지 논의됐던 잉글랜드-프랑스, 독일-네덜란드 축구 경기 역시 예정대로 오는 17일 진행된다.

항공, 철도, 선박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보안 강화로 수속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파리 내에서 시위와 집회는 이달 말까지 금지되며 학교 단위의 소풍 역시 22일까지 금지된다.

시민들의 마음가짐도 단호하다. 이들은 추모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연대와 용기를 강조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파리 곳곳에서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들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인질극이 벌어졌던 바타클랑 극장 앞에는 "테러리스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프랑스는 삶을 앗아간 사람들과 싸운다"는 메시지가 보인다. 바타클랑 인근 레스토랑 요리사 시루 크리스티아누는 테러 당시 레스토랑 불을 끄고 문을 닫고서 숨어 있었지만 현재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은 우리가 겁먹기를 바란다. 우리가 영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포는 있지만, 용기도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테러 현장에 5세 딸을 데려온 여성은 딸에게 테러의 참혹함을 직접 보여주며 딸을 이해시키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에 맞서는 움직임에는 파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동참하고 있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는 "테러 직후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이 폐쇄됐지만 오히려 파리 여행과 관광은 테러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 도심 여행사인 커커의 대표 테드 웨이크는 "아무도 파리를 먼저 떠나려 하지 않았고 추후의 예약 취소도 없었다"고 말했다. 테러 직후 항공사 측이 수수료 없이 프랑스행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의 승객은 예정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저가항공사 이지제트 대변인은 "단지 승객 소수만 파리를 여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지금 결과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파리 테러가 우리 예약과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RTL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또 다른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며 "프랑스 정보기관은 여름 이래 몇 차례의 테러를 방지했으며 경찰은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한 더 많은 테러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 이후 경찰이 프랑스 전역에서 수상한 이슬람 신자들의 가택을 수색했다. 국가 비상사태의 법적 틀을 활용해 극단적 지하드 운동의 일원인 사람들을 심문하고 있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수출 부진 속 쑥쑥 자라는 'K-뷰티·푸드·전자'

두자릿수 증가 보이며 고속질주
세계인 취향 맞춘 차별화 성과

올해 10월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하는 등 6년여 만의 수출쇼크에도 두 자리 수 대박행진을 이어가는 업종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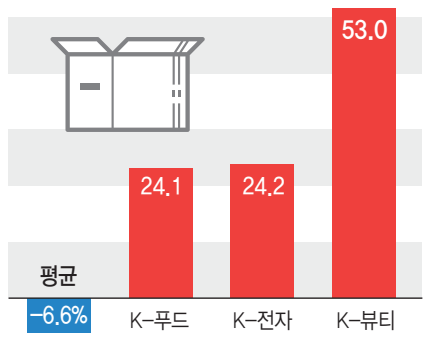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수출 호조업종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9월) 수출이 평균 6.6%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전체 730개 품목(수출 1000만 달러 이상)중 175개 품목은 5% 이상의 수출증가세를 기록했다.

역주행 품목을 유형별로 묶어보니 K-뷰티, K-푸드, K-전자 3가지가 꼽혔다.

실제로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차별화와 한류 문화 콘텐츠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K-뷰티의 성적표가 눈에 띈다. 눈화장품(36.9%), 립스틱(30.9%), 비누(61.2%), 샴푸(74.1%), 언더셔츠(7.2%), 스웨터(6.5%) 등 K-뷰티제품군은 평균 53.0% 증가했다.

전체 화장품 수출액을 봐도 지난 2011년 7조9000억달러에서 지난해 17조9000억달러로 최근 3년간 124.4% 증가했을 정도다.

2015년 **수출 호조 품목**(1~9월 누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측은 "K-뷰티의 성공비결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창조적 차별화'를 꼽을 수 있다"며 "쿠션, BB크림, 마스크팩, 한방샴푸 등 다양한 제품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몇 년 전 아모레퍼시픽이 선보인 '쿠션'은 세계인의 화장문화를 바꿔 놨다. 에센스, 파운데이션 등 기초화장품을 특수 스펀지에 한데 모아 툭툭 찍어 바르는 것으로 화장을 마무리하는 쿠션이 아시아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뒀다.

한국기업들은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색조 화장품 대신 기초화장품에 집중해 BB크림, 프리미엄 마스크팩, 한방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샴푸 등을 만들고 히트시켜 창조적 차별화를 계속 이어갔다.

화장품뿐 아니라 의류도 인기다. 김수현, 수지, 엑소, AOA 등 한류스타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활용한 패션 기업의 수출실적도 돋보인다. 대중국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의 65%를 의류가 차지할 정도다.

우유(13.3%), 분유(38.0%), 맥주(14.9%), 쇠고기(36.4%), 김(15.7%), 빙과류(8.2%), 담배(35.2%) 등 K-푸드제품군은 24.2% 늘었다.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신뢰구축' 전략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한 덕이다.

국내산 우유와 분유가 대표적 사례다.

〈수출호조품목 분류〉

K-뷰티 (13개 품목)	샴푸(74%), 기타화장품(쿠션 등, 65%), 비누(61%), 바지·스커트(51%), 눈화장품(37%), 립스틱(31%), 코트 및 자켓(17%), 유아복(11%), 언더셔츠(7%), 스웨터(7%) 등
K-푸드 (25개 품목)	분유(38%), 쇠고기(36%), 제조담배(35%), 닭고기(32%), 수산물통조림(21%), 김(16%), 맥주(15%), 코코아조제품(13%), 우유(13%), 빙과류(8%), 느타리버섯(7%) 등
K-전자 (23개 품목)	TV카메라(65%), 캠코더(33%), 무선통신기기부품(29%), 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23%), 반도체제조용장비(18%), 스캐너(12%), 소프트웨어(11%), 전기밥솥(10%) 등
기 타	광산물, 화학공업제품(화장품제외),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제품, 잡제품 등

/대한상공회의소

지난 2008년 중국의 멜라닌 분유 파동 후 신뢰도 높은 유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다소 비싸지만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며 2011년 3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700만 달러로 수출액이 190% 증가했다. 최근 중국의 한 자녀 정책 폐지는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맥주 수출도 인상적이다. 우리 교민들에게만 일부 팔려온 한국산 맥주가 현지화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농산품은 규격화로 주목받고 있다.

K-전자군은 무선통신기기부품(28.8%), TV·카메라(64.5%) 등의 호조세로 수출이 평균 24.1% 증가했다. 이들은 '다각화보다는 전문화' 전략이 수출공략 비법으로 꼽혔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미국에 해외공장을 설립했다. 국내 반도체가 약진하면서 제조용 장비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가전제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전기밥솥의 선전이 돋보인다. 압력밥솥에 전자레인지식 가열방식을 접목해 밥맛을 인정받았는가 하면 밥솥 하나로 죽, 탕, 찜까지 조리할 수 있도록 해 중국과 동남아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2000년만 해도 17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전기밥솥 수출은 5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3가지 제품군은 산업특성에 맞게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한 제품들"이라며 "교역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전체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그들의 성공비결을 눈여겨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의 수출품목(MTI 6단위 기준 1221개)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730개를 추려 분석됐다. 730개 품목의 올해(1~9월) 수출증가율을 계산해 보니 175개는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66개 품목은 0~5% 증가, 나머지 489개 품목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눈이 편안한 '커브드 모니터'?… 실제로 증명 됐다

서울대 김성준교수 연구팀
'눈 피로도 저하 효과' 실험
장시간 모니터 봐도 덜 피곤

삼성전자 커브드 모니터가 전문 의료기관의 연구를 통해 시각적 편안함의 효과가 입증됐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안과전문의 김성준 교수와 연구팀은 커브드 모니터의 눈 피로도 저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삼성전자의 34형 SE790C 커브드 모니터와 평면 모니터를 비교 테스트한 결과 커브드 모니터는 평면 모니터에 비해 사용 후 조절근점과 눈모음근점의 변화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근점 검사란 피사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확인하는 검사다. 눈모음근점 검사는 두 눈이 가까워지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따라가는 최소 거리를 측정한다.

삼성전자의 34형 SE790C 커브드 모니터. /삼성전자

따라서 조절근점과 눈모임근점의 변화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는 초점을 맞추기 위한 눈의 움직임이 덜하고 그만큼 눈의 피로도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주관적 지표인 눈 피로도에 대한 설문을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내적증상지표 중 '눈의 뻐근함' 항목에서 삼성전자 커브드 모니터가 평면 모니터 대비 뻐근함의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김성준 교수와 연구팀은 "커브드 모니터가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하는 현대인의 눈 피로도 저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 결과는 지난 6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안과학회 제114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정은미 기자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모델이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 미니 세탁기를 결합한 LG 트롬 트윈워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드럼세탁기+트롬 결합한 '트롬 트윈워시' 출시

LG전자가 상단에 세탁용량 16kg 드럼세탁기와 하단에 세탁용량 3.5kg 트롬 미니워시를 결합한 '트롬 트윈워시' 신제품을 16일 출시했다.

기존에 출시한 21kg, 19kg, 17kg에 이어 트윈워시 라인업은 모두 4개 용량으로 늘어났다.

LG전자는 트롬 트윈워시의 세트 구입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제품의 전체 외관 디자인 색상을 깔끔한 흰색으로 했다.

신제품의 상단 드럼세탁기(모델명: FH16WB) 출하가는 150만원대, 하단 트롬 미니워시(모델명: F35WC)는 70만원대로 세트기준 230만원대다.

LG전자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이달 한 달 동안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트롬 트윈워시를 구입시 모델에 따라 최대 25만원의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번 16kg 신제품의 경우 실제 구입가는 200만원 미만이다.

트롬 트윈워시는 분리세탁에 대한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해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인 트롬 미니워시를 결합한 혁신 제품이다. 세탁기 두 대 가운데 한 대만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트롬 트윈워시는 최대 280만원대의 고가임에도 하루 판매량이 최대 500대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은 "'트롬 트윈워시'가 기대를 뛰어 넘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갖고 싶은 세탁기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강덕수 서초동 자택 법원 경매로

〈전 STX 회장〉

경매 감정가 86억6000만원
공동주택 경매중 역대 최고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서초동 자택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공동주택으로는 역대 최고 감정가다.

16일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강 전 회장 소유의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가 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처리된다.

경매 대상물건은 대지 245.96㎡와 1층 건물 268.14㎡, 지하 1층 5.5㎡ 등이다. 이 주택의 감정가격은 86억6000만원이다. 이는 공동주택 경매사상 최고 감정가로 이전 최고가는 80억원을 기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1㎡ 크기의 펜트하우스였다고 법무법인 열린 측은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의 자택은 이 집을 담보로 3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하나은행이 지난 5월 경매에 넘겼다. 등기부상에 설정된 강 전 회장의 채무 총액은 66억원이다.

이 집은 지난 2006년 이후 10년째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지켜왔는데 올해 기준 공시가격은 61억1200만원이다.

지난 2003년 준공된 트라움하우스 5차는 3개 동, 18가구로 구성됐고 최고 두께 80㎝의 지하벙커가 있어 핵폭발과 진도 7의 강진에도 200명 정도가 2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구당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용 로비와 차량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갖췄다.

전기 공급중단 사태에 대비해 수동 발전기가 있고 벽체 곳곳에는 방사능 오염물질과 핵먼지 등을 걸러내는 필터와 공기순환기도 설치된 고급 주택이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이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가임에도 희소가치가 높은 집이어서 여러 차례 유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은미 기자

LG전자 '올레드 TV' 美 컨슈머리포트 1위

대형 TV부문 평가서 1·2위
시야각·화면끌림 등 화질 뛰어나

LG전자 올레드 TV가 미국의 소비자 평가 기관 '컨슈머리포트'의 대형 TV 부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16일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TV 55~59인치 부문 평가에서 지난 8월 출시한 55인치 LG 올레드 TV가 총점 80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78점)도 올해 초 출시한 LG 울트라 올레드 TV에 돌아갔다. 3~4위는 삼성의 UHD TV 두 모델이 뒤따랐다.

1~5위까지 모두 LG·삼성 제품이고 6위에는 파나소닉 비에라 TV가 들어왔다.

평가항목은 HD 화질, 울트라 HD 퍼포먼스, 3D 퍼포먼스, 시야각, 모션블러, 사운드 품질 등이다. 올레드 TV는 특히 시야각, 화면끌림 등 화질에 대한 부문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델이 동교동 LG베스트샵에서 LG 올레드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60인치 이상 부문에서는 LG의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와 삼성전자의 65인치 SUHD TV가 81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소니의 브라비아 65인치 모델이 79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TV를 크기별로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6개 부문 중 공동 1위를 포함해 LG가 4개 부문, 삼성이 3개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정은미 기자

현대차 '퀀텀 점프' 비결은?… N라인 제네시스 쌍끌이

EQ900 필두로 2020년까지 6종의 고급차 라인업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양산차 기술력 끌어올릴 것"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론칭과 고성능 브랜드 라인 'N' 등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가 2008년 첫 수출을 시작한 대형 세단 제네시스가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는 제네시스의 판매 상승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 1세대(BH) 모델과 2세대(DH)는 2008년 출시 이래 올해 10월까지 내수 20만2756대, 수출 19만8259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40만1015대가 판매됐다. 올해 제네시스가 해외에서 월평균 3500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수출 20만대 고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제네시스는 국산 대형차로는 처음으로 국내 누적 판매 20만대를 넘은 차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2008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7년만에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각각 20만대를 넘어서는 '20만-20만대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세대별로는 1세대 모델(BH)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수 13만4651대, 수출 12만9147대 등 총 26만3798대가 판매됐다.

2세대 모델(DH)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내수 6만8105대, 수출 6만9112대 등 총 13만7217대가 팔렸다. 특히 2세대 모델은 1세대에 비해 판매 대수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팔렸다.

현대차는 새로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로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전세계 고급차 시장은 올해부터 연평균 4%씩 수요가 증가해 2019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 성장률은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는 다음달 제네시스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을 국내에 선보이고 내년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 여기에 벤츠의 'AMG', BMW 'M'과 같은 고성능 브랜드 라인인 'N'을, 친환경차는 '아이오닉'으로 구분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모터스포츠의 성지이자 수많은 레이서의 목숨을 앗아가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신차 'EQ900'이 14일(현지시간)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곳은 벤츠, BMW, 포르쉐 등 수 많은 고급차 브랜드의 테스트 센터들이 모여 있는 곳, 신차들이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코스이기도 하다. /현대기아차

현대차는 2015년 12월 G90(국내명 EQ900, 신형 에쿠스) 출시를 시작으로 2016년 하반기 G80(기존 제네시스 개선모델), 그리고 2017년에 G70(D급 신차종)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0년까지는 SUV 2종, 스포츠쿠페 1종을 출시해 총 6종의 고급차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은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고성능라인 N을 통해 질적성장을 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양산차의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연구원은 "현대차의 올해 영업이익이 10%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20%의 이익감소를 마무리하고, 2016년 판매증가와 환율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판매부진을 겪었던 중국 시장에서도 정부의 수요진작 정책과 북경현대의 가격인하·신차투입·증설 등에 힘입어 판매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소형 SUV 도전장

친환경 SUV '니로' 이미지 공개

기아자동차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소형SUV '니로(NIRO)'의 렌더링 이미지(사진)를 16일 공개했다.

니로는 극대화된 친환경 기술력을 연상시키는 '제로에 가까운(Near Zero)'과, 한층 강화된 친환경 모델 위상을 상징하는 '영웅(Hero)'을 결합시킨 차명이다. 전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소형 SUV 니로는 공기역학에 최적화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니로의 전면부는 범퍼 하단 외곽에 에어커튼을 적용해 공력성능 향상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구현했다. 좌우로 넓은 그래픽형상을 통해 안정적 이미지도 완성했다. 또 측면부는 역동적이며 공기역학에 최적화된 실루엣라인, SUV의 스포티함을 강조한 숄더라인이 특징이며 전후면 범퍼에서 이어지는 휠 아치 몰딩, 사이드라인 몰딩으로 단단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후면부는 리어 윈도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을 연결한 인상을 구현해 세련미를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소형SUV 니로는 카파 1.6GDi 엔진에 6단 DCT를 적용해 최대 출력 105마력(ps), 최대 토크 15.0kg·m를 구현했으며 1.56kWh 배터리와 35kW 모터를 장착했다. 또 SUV의 실용성과 하이브리드의 고효율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췄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니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소형SUV 시장에서 놀라운 연비와 최고의 상품성으로 가장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기업 평균 연비를 2014년보다 25%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2020 연비향상 로드맵'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전 차급의 친환경 라인업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로터스 엑시지 S' 자동변속기 모델 국내 첫 출시

로터스코리아(대표이사 이혁)가 16일 경기도 과천시 선바위역 부근 쇼룸에서 열린 '로터스 엑시지S 오토매틱' 출시 행사를 열었다. '로터스 엑시지S'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오토매틱 모델로 345bhp 3.5리터 슈퍼 차저 V6 엔진을 장착해 단 3.9초 만에 100km/h에 도달한다. 1억 4050만원이다. /로터스코리아

추신수 국내 체류기간 BMW 뉴 7 탄다

BMW코리아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의 의전차량을 지원한다. 지난 15일 귀국한 추신수 선수는 체류 기간 BMW 플래그십 세단 뉴 7시리즈(750Li x드라이브 프레스티지)를 이용한다. 의전 차량으로 제공된 BMW 뉴 7시리즈는 역동적인 승차감과 효율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 편안한 장거리 주행, 웰빙 감각의 실현 등 다양한 요소를 최적화 시키는 모든 신기술이 반영된 모델이다. /BMW코리아

대우조선해양 '노사합동 전사 대토론회'

4만5000명 전직원, 경영정상화 위해 뭉쳐

위기 원인·극복 방안 논의

올해 4조원대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우조선해양은 16일 옥포조선소 협력업체를 포함한 4만5000명의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 상황 극복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합동 전사 대 토론회'를 가졌다.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극복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 조직, 회사 차원에서 경영정상화 방안과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프로젝트 적기 인도 등 전 임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방향제시보다 밑에서부터 올라온 자발적인 의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노사가 함께 기획했다. 특히 임원 등 간부들 중심이 아닌 실무자 위주로 토론회가 진행되어, 정상화를 위한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오전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노사합동 전사 대 토론회'에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제안된 방안들은 전사혁신추진국, 인사 등 회사의 관련조직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취합·분석해 구체적인 정상화 실천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서 11월30일에 정상화 실천 방안 전사발표대회를 갖고, 조직별로 노사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화 방안을 지속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노사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정 만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산을 멈추고 토론회에 시간을 할애한 것은 당장의 공정보다 원인과 대안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대 토론회가 우리의 자존심을 찾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사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연간 세전 순손실 규모는 6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스마트 시스템으로
새롭게 태어난 잉글리쉬 무무,
사업설명회에서 공개합니다!

디지털 교육환경에 꼭 맞는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해 잉글리쉬 무무의 스마트무무가 탄생했습니다.
태블릿PC를 활용한 플립러닝 기반의 말하기·쓰기 완전학습 시스템을 사업설명회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10년간 굳건히 현장을
지원한 **탄탄한 본사**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인증한
OAEP 프로그램 보유

전용 태블릿PC
개발 완료

학습 연계 **e-book**
1,000여권 공급

**10년간 변함없이 학습 결과에만 몰두한 잉글리쉬 무무,
사업설명회에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 2015년 11월 13일 (금) 10:00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부산 2015년 11월 17일 (화) 10:00
벡스코 1전시관 314호

서울 2015년 11월 19일 (목) 10:00
위례신도시 밀리토피아호텔 그랜드볼룸

* 문의 1544-9905

*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20분(총 60분)께
태블릿을 드립니다. (정가 245,000원, 사전 예약자에 한함)

English 無無

10th ANNIVERSARY
잉글리쉬 무무 창립 10주년

내가 관심있는 광고만 보여준다

네이버·카카오, 맞춤형 광고플랫폼 출시 빨라진다

카카오-게임·네이버-초기화면 주력

네이버와 카카오가 맞춤형 타게팅을 통한 광고 플랫폼 강화에 나선다. 네이버는 라인의 광고 상품을 늘리고 타기팅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맞춤형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하기' 파트너사들에게 이용자들의 게임 패턴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마케팅 플랫폼(GM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GMP는 연내 출시되는 모바일 보드 게임에 1차로 적용 후 내년부터 모든 모바일 게임사를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GMP는 카카오가 강조하는 '상생'과 맥을 같이 하는 새로운 매출 창구다.

카카오는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카카오톡 기반 '맞춤형 광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앱 광고를 이용자들에게 노출했을 때 앱을 설치한 이용자에게는 더 이상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 '네거티브 타기팅' 등이 있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뮤직 등이 포함된 '기타(콘텐츠)'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광고 매출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매출은 지난해 3·4분기만 해도 전체 매출의 2%에 불과했지만 올해 3·4분기에는 1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광고 매출은 지난해 3·4분기 전체의 64%였지만 별다른 성장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다가 올해 3·4분기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62%에 그쳤다.

따라서 카카오의 이 같은 전략 구상은 모바일 시장에서 새로운 광고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최용석 IR팀장은 "카카오톡에 광고 플랫폼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카카오스토리도 다음 검색광고와 통합해 광고주 숫자가 올해 초 대비 2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의 온디맨드 전략은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 채널이나 샵(#)검색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성 광고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역시 라인 광고를 통한 수익화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광고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정교한 이용자 타기팅을 통해 특정 대상에게만 광고를 노출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황인준 네이버 CFO는 "(모바일 광고 분야에서) 타게팅을 정교화하는 방식의 광고 상품을 확대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라인의 적립식 사이버머니(코인) 서비스는 게임을 다운로드받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면 코인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광고 노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처럼 개인형 이용 패턴을 고려한 광고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지난 3월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모바일 네이버 첫 화면의 주제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판 개인화 설정 기능'을 도입했다.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체류시간이 늘고 해당 주제판에 관심이 있는 진성 이용자가 모이게 됨에 따라 마케팅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이용할 수 있는 '패션뷰티판'은 이용자 86%가 여성이고 그중 20~29세의 여성이 60% 이상 차지한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타기팅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면서 "따라 하기 쉬운 '뷰티 파우치' 영상의 경우 편당 20만 건 넘게 재생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의 3·4분기 광고 매출은 모바일 부문의 지속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전분기 대비 5.1% 성장한 5870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모바일 매출 비중은 40% 수준으로 확대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라인의 광고 매출은 전분기 대비 40%이상 늘었고 스티커 매출도 전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기업용 유료 계정인 라인앳 역시 전분기 84만개 수준에서 3·4분기에는 137만개까지 늘었다.

다만 라인의 경우 국내 비중이 작고 일본 비중이 가장 크다. 또한 대만, 태국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라인 광고 상품도 국내보다는 해외를 초점으로 맞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3·4분기 전체 매출 중에서도 해외 비중이 35%까지 확대되는 등 해외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시럽 테이블', 음식점 예약 서비스 제공

SK플래닛

전국 맛집 약 30만 곳 추천

SK플래닛은 자사의 맛집 추천 서비스 '시럽 테이블'을 통해 전국 약 30만 곳의 음식점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럽테이블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음식점을 선택하면 예약 시간과 방문자 정보, 인원 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성사 여부는 알림을 통해 전달되며 향후에는 점주용 솔루션 '시럽 스토어'와 연동할 계획이다.

시럽 테이블의 예약 기능은 고급 레스토랑뿐 아니라 예약이 가능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SK플래닛은 지난 9월 선보인 '오늘 점심' 메뉴 추천 제공지역에 역삼·선릉역 인근 지역을 추가했다.

광화문, 종로, 강남, 판교 등 주로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매일 점심시간 전에 그날의 날씨, 요일, 상황 등에 맞는 추천 점심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시럽 테이블이 직장인들의 선호 메뉴와 자주 검색해 본 관심 메뉴에 대한 빅데이타를 분석해 선정한 150여 가지의 대표 점심 메뉴 중 사용자가 미리 선택해 둔 지역에서 매일 2~3가지의 메뉴와 각 2~3곳의 음식점이 추천된다.

SK플래닛의 맛집 추천 서비스 시럽 테이블이 전국 30만개 음식점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델들이 라그릴리아 이태원점에서 시럽 테이블 예약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K플래닛

현재 시럽테이블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80만개 음식점 정보와 블로그, SNS 등에 등록된 정보를 분석한 450만 개 이상의 리뷰와 매장사진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맛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T전화·청소년안심팩 빨라진다

SK텔레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로

5G이동통신시대 성큼

SK텔레콤은 전송망 가상화 기술인 '소프트웨어 정의망(T-SDN)'을 장비 일부에 적용해 상용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했다. 또 연내 가상화 기반 기지국인 'vRAN'의 상용망 시연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네트워크 가상화로 5G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T-SDN의 상용화와 연내 실시 예정인 vRAN의 필드테스트를 통해 SK텔레콤은 기지국과 교환기, 전송 기술 등 3대 영역에 가상화 기능을 도입한다. 네트워크 가상화는 고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시간 도입이 핵심이다. 가상화 네트워크에선 신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수개월 소요되는 기존 네트워크와 달리 수시간이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 상용화된 'T-SDN'은 다양한 제조사 장비로 이뤄진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트래픽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현재 광전송망 장비에 일부 적용됐으며 오는 2016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vRAN은 기지국별로 해오던 처리 기능을 중앙집중국에 있는 범용 네트워크 장비에서 통합 처리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필드테스트를 통해 본격 상용망 적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이 16일 전송망 가상화 기술인 'T-SDN'을 전송망 장비 일부에 적용해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 구성원들이 서울 보라매 사옥에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센터 'IPC'에서 각종 가상화 기능들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특히 SK텔레콤은 이 같은 가상화 기술 도입을 위한 인프라와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보라매 사옥에 '네트워크 가상화 센터(IPC)'를 열었다. 현재 IPC에서는 T청소년안심팩, T청춘, T전화&, 비즈링 등 20여개 서비스도 가상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영역까지 가상화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이종봉 네트워크 부문장은 "'T-SDN'의 상용화로 기지국부터 서비스까지 전 네트워크 영역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네트워크 가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5G 도입과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수험생 위한 '재수 없는 펀펀한 콘서트'

〈再修〉

LG유플러스-CJ E&M

27일 홍대 예스24 무브홀

엠넷닷컴 고객 대상 초청

LG유플러스가 CJ E&M과 공동으로 '2015 재수(再修)없는 펀펀(FunFun)한 콘서 트'를 오는 27일 홍대 예스24무브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수험생을 동반하는 LG유플러스 엠넷닷컴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명에게 1인당 초청장 2매를 지급한다.

오는 22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 혹은 엠넷닷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23일 선정한다.

공연 당일 입장 시 초청장과 수험표를 제시하면 된다.

이번 공연은 '슈퍼스타K' 출신 박보람, 정준영 밴드와 유튜브 스타 쿠쿠크루 등이 출연해 재미난 퍼포먼스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예정이다.

또한 콘서트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최신 블루투스 헤드셋·고급 헤드폰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세성 기자 sesung@

"익스피디아로 호텔 예약하면 데이터가 무료"

오늘부터 데이터 로밍 서비스

2명 추첨 숙박권 제공 이벤트

KT는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를 이용하면 17일부터 데이터 로밍 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익스피디아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호텔 검색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휴로 올레닷컴과 연계된 KT 전용 익스피디아 사이트를 통해 숙박비를 1박당 10만원 이상 예약·결제하는 고객은 '데이터 로밍 무제한' 서비스를 1박당 1일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액에 한도는 없으며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제휴 로밍 혜택으로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KT는 익스피디아와 제휴를 기념해 연말까지 이 혜택을 이용하는 고객 2명에겐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익스피디아 제휴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7일부터 올레닷컴, 올레 로밍콜센터, 올레 로밍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KT가 익스피디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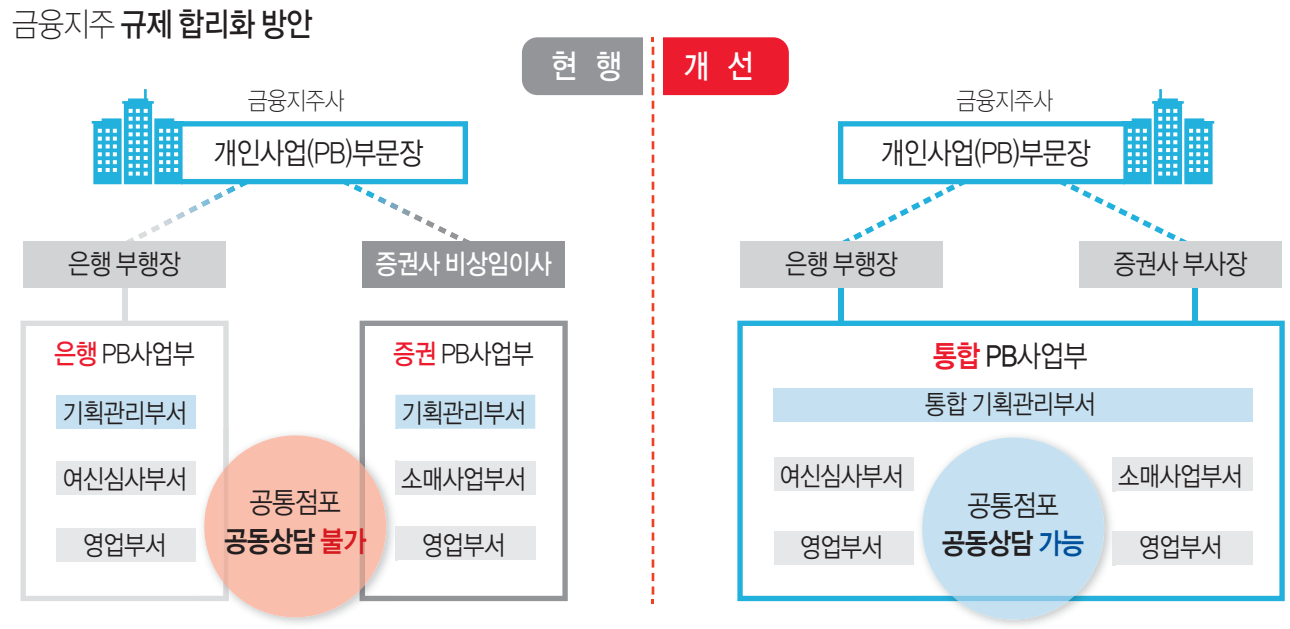
정보 유출에… 대출 사기에… 모뉴엘 사태까지…

잇단 악재에 신뢰 흔들… 충무공처럼 위기 사전대비를

금융지주사의 빛과 그림자

④ 리스크 관리는 문화속에서

선진국들, 대형은행 규제 강화… 국내서도 '대형화' 논란 거세
전문가들 "은행들, 기본으로 돌아가 리스크관리 더 고삐 죄야"



2014년 영화 '명량'이 우리 사회를 흔들었다. '명량'의 성공 이유는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사태, 육군 28사단 장병 구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내는 암울하기만 했다. 영화는 위기감을 느끼는 현실에서 탈출하게 할 속 시원한 영웅에 대한 갈망, 해결책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국민을 위로했다.

은행 등 금융지주사들도 '이순신'에 열광했다. 바로 리더십과 함께 위기 관리 능력을 보면서다.

이순신 장군에게도 명량해전은 두려웠을 게 틀림없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말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승리를 갈망하는 자기최면에 가까웠다. 금융지주회사에게도 자기 최면이 필요한 이유다.

◆위기관리 낙제점 왜?

지난해 가장 곤욕을 치른 곳이 KB금융지주다. 지난해 초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이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KT ENS 대출사기 등 악재가 이어졌다. 여기에 임영록 KB금융지주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내분까지 고객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문제는 단순히 이미지 실추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국내 최고의 은행이라는 입지까지 흔들렸다.

모뉴엘 사태에서도 리스크 관리의 부재를 드러냈다.

모뉴엘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출 서류를 위조해 3조20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국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도 벌였다. 모뉴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장의 현직 비서실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별 모뉴엘 대출 규모를 보면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1253억원), 수출입은행(1135억원),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1098억원), 국민은행(760억원), 농협은행(753억원) 등의 순이다.

과거에도 걱정과 현실은 달랐다.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기업 부실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지주였지만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지주는 맥없이 휘둘리기 일쑤였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우리금융은 2002년 5916억원에서 2003년 563억원으로 10분의 1로 줄었고, 신한금융도 같은 기간 6039억원에서 363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지주사와 은행은 부실을 떠 안고 카드사를 껴 안았다.

금융위기 때에도 '블랙스완(black swan·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형 사고)'이라고 치부하며 대손충당금만 늘리는 데 그쳤다. 2007년 당기순이익 1조 2981억원을 기록한 하나금융은 2008년과 2009년 각 4834억원과 306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리스크'관리는 문화속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형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해 온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전략에도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은행 산업에서도 과연 지속적인 대형화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리스크를 고려해 국내은행의 비용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규모·범위의 경제효과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면서 "이는 향후 국내 은행산업에서 인수 · 합병 또는 대출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대형화의 효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섣부른 대형화 보다는 리스크를 고려해 은행의 자산규모와 수익구조를 최적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리스크문화(risk culture)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원은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수행 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계량적 성과지표의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은행의 지속 성장도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은행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자 장치산업이다. 규제산업이기에 은행과 정책당국은 함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산업이 장치산업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굳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더라도 돈을 잘 벌 수 있다"면서 "은행의 본업은 리스크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EB하나-외환銀 노조, 노사상생 맞손

노조, 올해 급여 인상분 반납하자
경영진 "직원 삶의 질 향상" 화답

KEB하나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는 16일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상생 선언'을 채택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약을 통해 옛 외환은행 출신 전 직원은 올 급여 인상분(2.4%)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외환노조는 선언문에서 "노사 상생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 경영진과 인식을 같이하고 비생산적 논쟁을 자제하며 경영진의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노사상생의 조직문화 구축과 직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언은 올해 은행권 노사의 첫 상생선언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이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 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직전까지 충돌을 거듭했던 양측은 최근 저성장·저금리로 은행업계가 직면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이번 선언에 동참했다.

은행 측은 "하나·외환은행 합병법인으로 출범한 KEB하나은행의 함영주 초대 통합행장은 취임 2개월 만에 별개의 노조로 존속한 외환노조와 대타협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함 행장이 섬김과 배려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문호 기자

카드와 OTP를 하나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IBK기업, OTP겸용 카드 선보여

IBK기업은행은 신용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하나로 합쳐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표면에서 OTP 번호가 발생하는 'IBK주거래카드'(사진)를 17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앞서 출시된 '스마트OTP'와는 다른 방식이다. 스마트OTP는 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앱에서 OTP 번호가 생성되는 형식이었다.

이번에 출시한 OTP 겸용 신용카드는 'IBK주거래카드'를 사용하면 두꺼운 토큰형 OTP를 별도 구매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50만원 이상 사용시 3000원, 100만원 이상시 6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며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2000원(월 최대 6000원)을 캐시백해 준다. 또 GS칼텍스에서 주유시 리터당 60원 할인, CGV·롯데시네마 영화관 2000원 할인, 주요 놀이공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 혜택은 기업은행 계좌로 급여 수령 및 카드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된다.

연회비는 1만원이며 VISA 브랜드로 발급된다. 단 발급시 OTP 기능 삽입에 따른 수수료 1만10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김보배 기자 bobae@

하나멤버스 '1Q카드' 한달만에 15만좌 넘어

멤버십포인트 특화에 인기몰이

하나카드는 지난 10월 6일 출시한 '하나멤버스 1Q(원큐)카드'(사진)가 출시 1개월 만에 신용카드 10만좌, 체크카드 5만좌 등 총 15만좌가 발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원큐카드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하나멤버스) 포인트인 '하나머니' 적립을 특화한 상품이다. 업종별 사용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만(월 최대 5만) 하나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하나머니는 전국 240만 하나카드 가맹점에서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전국 KEB하나은행 입·출금자동화기기(ATM)에서 즉시 현금 출금할 수도 있다.

1Q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 8000원, 해외겸용 1만원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촉각점자교재 함께 만들어요"
KB국민카드, 교재제작 봉사

KB국민카드는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해 시각장애 학생이 한글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촉각점자교재를 만들었다. 지난 7월 진행한 나눔공유 캠페인에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가 제안한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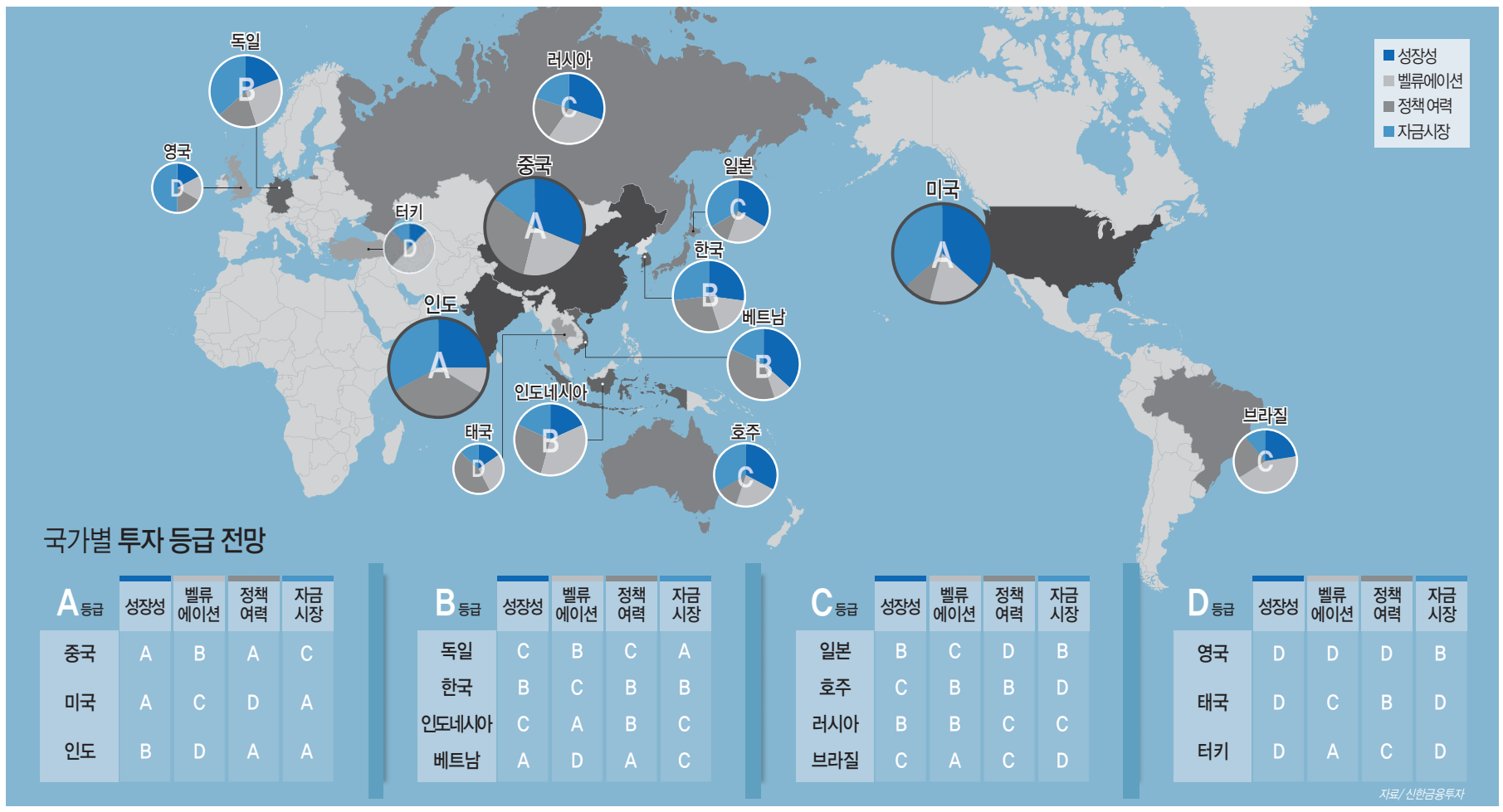
KB국민카드는 7월 나눔 공유 캠페인 '생각을 나누고 사랑을 더하다'를 통해 접수된 187건의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중 이번 시작장애인 점자책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 제빵기능 자격증 취득 지원 ▲미혼모 검정고시 지원 ▲외국인 이주자 등을 위한 한국어 교실 등 총 7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제작한 100여권의 촉각점자교재는 전국 주요 맹학교와 유관 기관에 전달해 시각장애 학생의 한글학습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강남아줌마' 해외주식 직구 붐

〈직접 구매〉

#회사원 이모씨(44)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경제효과가 기대 이상일 것이란 소식을 접 할 때마다 남 몰래 웃는다. 직장 동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며 손사레를 치지만 베트남 경제 덕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베트남 상장지수펀드(ETF)를 샀다. '해외 주식 직구'를 한 셈이다. 가윗돈이 생길 때마다 사들인 ETF가 1500만원어치. 이모씨는 "지난해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TPP 타결 이후 한달새 다른 주식투자 수익률을 웃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모씨가 요즘 관심있게 지켜보는 시장은 중국이다. '중국판 코스닥'인 선전 증시가 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강퉁'(선전과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시행에 대비해 PB센터를 찾아 뜰만 한 종목을 고르고 있다.



연 1%대 초저금리 시대가 굳어지면서 해외 주식직구에 나선 '강남 아줌마'가 다시 늘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면서 국내 자산시장에서 과거와 같이 높은 수익을 기대할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때문이다. 한국보다 앞서 저금리가 지속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들은 일찌감치 해외에 눈을 돌렸다.

◆해외 주식 '직구족' 증가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3일 현재 보관 중인 해외주식보관 규모는 금액기준 7조1643억원이다. 10월 말 7조439억원보다 약 1203억원이 늘었다. 9월 6조1197억원 이후 세달 연속 증가세다.

해외주식 보관 잔량은 지난 6월 6조2550억원을 기록한 후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이 퍼졌던 8월 6조320억원까지 감소한 바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수하면 예탁원에 주식을 보관해야 하는데 살 경우 잔량이 늘어난다. 반대로 주식을 팔 경우 잔량은 줄어 든다. 결국 예탁원 보관 잔량의 증감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 투자 규모의 변동을 의미하는 셈이다.

외화 주식 직접투자 결제금액도 올해들어 13일 현재 5조64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결제금액 2조7075억원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권 PB센터 관계자는"중국의 경기부양 기대와 '선강퉁' 시행이 예고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저성장에 높은 수익 투자처 없어
해외주식 보관률 세달 연속 증가
中 '선강퉁' 예고에 투자 문의↑
한국 경제성장 토대로 투자처 골라
반년 만에 후강퉁 거래 5조원 이상

주부 황모씨(60)도 올 초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면서 해외 주식 직구에 발을 들였다. 황 씨는 "중국은 시차가 없는 데다 한자를 써 기업들의 이름이 낯설지 않고 한국의 1980, 90년대 경제성장 경험을 토대로 투자처를 고를 수 있어 좋다"며 "증권, 자동차, 철도 관련 종목에 투자했더니 수익률 60%가 넘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후강퉁이 시행된 작년 11월 17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5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은 4조4418억 원 규모의 본토 주식을 거래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최근 한 달 치를 더하면 6개월 만에 후강퉁 주식 거래는 5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 한계…해외 주목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뭘까. 불확실성에 내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전망도 그리 나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낮은 원자재 가격, 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전망치보다는 0.2% 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계경제는 내년에 3.3%, 이듬해인 2017년에는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감소를 겪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개선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올 성장률 전망치가 2.0%에서 2.4%로 올라갔다. 중국은 종전 전망치인 6.8%가 유지됐다. 유로존은 저유가와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에 힘입어 기존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신한금융투자 이승준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특히 선진국 수요 불안이 클 때는 글로벌 공급사슬 구조가 약화됐지만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2016년 미국 중심의 선진국 경기 부진이 완화되며 선진국 수요가 신흥국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달러에 묻어두는 '환 테크'족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달러 투자 상품인 달러예금 잔액은 494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에 달했다. 반면 투자 메리트가 사라진 위안화예금은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이탈하면서 잔액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10월 말 위안화 예금 잔액은 71억9000만달러로 9월 말보다 22억4000만달러 줄었다. 이는 2013년 12월말(66억7천만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교보증권, 한부모 가정에게 '사랑의 빵' 전달

교보증권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양천·강서희망나눔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교보증권 창립 66주년을 기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장을 위해 기획됐다. 교보증권 임직원 80여명은 초코·치즈머핀 등 빵과 국수를 만들어 양천·강서구 일대 한부모가정 130가구에 전달했다. /교보증권

대신證 '사이보스 터치' 리뉴얼 오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가독성 증대에 초점 맞춰 디자인
접근성 높이고 음성검색 기능 추가

대신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사이보스 터치가 리뉴얼 오픈한다.

대신증권은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사이보스 터치(CYBOS TOUCH)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이번 리뉴얼 오픈을 통해 정보 및 가독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추가했다.

음성검색 기능을 통해 주식 종목명 또는 종목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졌다. 퀵메뉴 편집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에 전체메뉴, 관심종목, 마이메뉴, 멀티히스토리로 고정되었던 퀵메뉴를 고객이 원하는 주요메뉴로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킬 수 있다. /김문호 기자

미래에셋 "연금상품 하나면 노후 걱정 끝"

다양한 투자지·자산의 라인업 장점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 '3저 시대'가 도래하면서 효율적인 연금자산관리가 중요해졌다. 은퇴 이후 20~30년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상품이 그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배분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AP(Actual Portfolio)를 제공, 연금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연금펀드',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펀드' 등 국내, 선진국, 이머징 등 다양한 투자지역과 자산으로 구성한 165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이다. 올해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3.2% (지방소득세 포함)인 92만4000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지난 7월 시행됐다.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개인들은 더 커진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연금자산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전략과 목표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 만큼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일일이 대처하기도 어렵다. 만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 랩어카운트'가 좋은 해결책이 된다. 주식형펀드 투자한도 확대로 주식비중 70% 이내의 자산배분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 랩 고수익추구형을 출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도 가능해졌다.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랩'은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위원회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체 공모 상품에 대해 매월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30% 상품으로 AP(Actual Portfolio) 그룹을 선정한다. 체계적인 투자 판단과 상품 선정으로 꾸준하게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문호 기자

연금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가입할 수있는 미래에셋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미래에셋 증권

숲 품은 역세권… 더블 프리미엄 아파트 뜬다

풍부한 주거수요·쾌적한 공기
최고 3000만원 웃돈 붙기도

대화역+일산 호수공원 5분
'킨텍스 꿈에그린' 1순위 마감

녹번역+폭포·달빛 정원까지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주목

삼성물산이 이달 중 서울 녹번동 일대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조감도. /삼성물산

연말 아파트 분양 시장에 역세권과 숲을 갖춘 더블 프리미엄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세권 단지는 주거수요가 풍부해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산과 공원숲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면 일석이조다.

실제로 더블 프리미엄 단지에 대한 관심은 매매 거래에서 확인된다. 한화건설이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신도시 킨텍스 부지(한국국제전시장)에 1880가구 규모(아파트 1100가구, 오피스텔 780실)로 공급한 주거복합단지 '킨텍스 꿈에그린'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프리미엄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일산호수공원이 있는 그린 프리미엄으로 눈길을 끌었다.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152㎡은 8.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전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오피스텔 역시 29.1 대1의 경쟁률로 계약 3일만에 완판됐다. 1500만~3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전주 에코시티 6블록에 선보인 '에코시티자이'는 440가구(특별공급 200가구 제외) 모집에 3만3652명이 접수하며 평균 76.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최고 경쟁률은 312가구 모집에 2만5960명이 몰리며 83.2대 1을 기록한 84㎡였다.

단지는 센트럴파크와 맞닿아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는 세병호와 백석저수지, 화정소류지, 천마산, 건지산, 소양천, 전주천 등이 인접해 있다.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단지 인근 동부대로를 통해 전주역까지 승용차로 10분 이내 이동 가능해 전라고속철도(KTX) 이용이 수월하다.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전주광양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이 좋다. 웃돈은 1000만~1500만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듯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춘 아파트가 공급돼 눈길을 끈다. 16일 기준으로 연말까지 서울 9116가구, 경기도 3만2888가구, 인천광역시 116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역세권,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택지지구 14개 단지에서 1만22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이 이달 녹번동 일대에 공급하는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가 주목할 만 하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3분 거리인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이용시 종로 권역은 15분, 신사역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단지의 특성을 살린 조경특화 시설을 선보인다. 단지 내에는 건강 테마길인 '헬시웨이(Healthy Way)'가 조성된다. 헬시웨이는 약 2㎞의 산책 코스인 힐로드와 연령대별 걷기 코스인 체력단련 코스, 시니어 코스, 주니어 코스로 만들어 진다.

또한 주 진입부에는 자연형 폭포가 조성되고 중앙광장에는 해와 달, 별, 구름을 모티브로 한 달빛정원이 들어선다. 철쭉길과 단풍나무길, 왕벚나무길 등의 테마길도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철쭉길은 북한산 등산로 진입 산책로에 들어서며 단지와 북한산을 아우르는 조경 공간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바닥분수와 아쿠아놀이터, 체험형 정원인 키즈가든 팜 등 래미안 스타일 조경시설이 적용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은평초등학교가 있으며 단지내에는 어린이집과 4층 규모의 유치원이 들어선다. 2018년께 초등학교도 설립된다. 또한 NC백화점과 CGV불광, 이마트(은평점)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좋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0개동 1305세대(전용면적 59~114㎡) 규모다. 이 중 33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59㎡TH 4가구, 84㎡ 328가구, 84㎡TH 5가구다. 전 세대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평면설계는 3베이 판상형, 타워형, 테라스하우스 등으로 공급된다. 84㎡A 타입은 3베이 판상형 구조로 가변형 주방공간과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제공된다. 주방공간은 주부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ㄷ'자 대면형 주방으로 구성된다. 84㎡C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안방과 자녀침실이 분리된 구조다.

이외에도 각각 4가구(59㎡TH), 5가구(84㎡TH)가 공급되는 테라스하우스는 최소 36㎡에서 최대 56㎡ 크기의 테라스 면적이 추가된다. 견본주택은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되며 녹번역 5번 출구에 현장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SK건설, 美 액화플랜트 5조원 수주

내년 4월 착수… 2020년 준공
LNG사 액화 원천기술 첫 적용

SK건설이 해외에서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SK건설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호 인근에 연산 800만t 규모의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를 43억5000만 달러(5조900억원)에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매그놀리아 LNG사가 발주한 이 공사는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SK건설과 KBR 지분이 각각 30%(13억600만 달러), 70%(30억4800만달러)다. SK건설은 이달 사전 공사를 시작

미국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조감도. /SK건설

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마무리되는 내년 4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0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는 미국의 KBR과 벡텔, 일본 JGC·치요다 등 글로벌 메이저 회사가 독점하는 구조였다. 고도의 기술력과 시공경험이 없으면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LNG사의 천연가스 액화 원천기술을 최초로 적용하게 된다"며 "공정 단순화로 투자비용과 탄소배출량을 상당 수준 감축하는 성과를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SK건설은 2008년 호주에서 매그놀리아 LNG의 모회사인 호주 LNG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액화공장 기본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호주 LNG사는 이번 미국 프로젝트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에서도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박상길 기자

한화건설, 동반성장 결의 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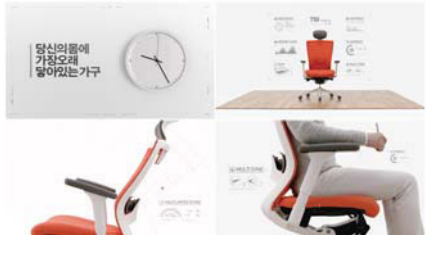
한화건설은 최근 100여개 협력사와 함께하는 '2015년 동반성장 결의 산행'을 가졌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에서 '도전과 화합'을 주제로 마련된 행사에는 100여개 협력사 대표와 한화건설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반성장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에 따라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성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화건설

의자 브랜드 '시디즈'

의자의 중요성 알린다 신규 TV광고 2편 선봬

의자 전문 브랜드 시디즈가 의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규 TV광고 2편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시디즈는 올 상반기부터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의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왔다. 새로 선보인 광고 역시 의자가 왜 인생을 바꾸는지, 왜 좋은 의자가 필요한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현희 기자



이건창호, 에너지 절감기술 뽐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차세대 진공유리 등 선보여

이건창호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Energy Korea 2015)'에 참가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이건창호는 이번 전시회에서 독일 슈코(SCHUCO)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최고급 시스템창호와 차세대 진공유리, BIPV(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기술 등을 내놨다.

특히 '차세대 진공유리'는 기존과 다른 신기술을 도입해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진공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진공 층을 형성해 대류와 전도를 통한 열전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제품이다. 현재 복층 유리 중 세계 최고의 단열성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건창호의 차세대 진공유리.

이 기술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 주관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지난해 에너지절약 유공자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데 이어 올해는 제11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계약 마감

한화건설
142가구 전 평형대 1순위로
최고 경쟁률 31.55대 1 기록

한화건설이 서울시 은평구 은평뉴타운 상업 4블록에 공급한 '은평뉴타운 꿈에그린'이 계약 5일 만에 142가구 모두가 판매됐다. 은평뉴타운 꿈에 그린은 지하 4층~지상 20층, 3개동, 444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142가구로 구성된다. 지난달 28일 실시된 청약에서 16.08대 1의 평균경쟁률과 31.55대 1의 최고 경쟁률(59㎡B)을 기록하며 전 평형대가 1순위 마감됐다.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소형 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문 3.3㎡당 1340만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은평 뉴타운 꿈에 그린 조감도. /한화건설

전용 19~21㎡ 302실의 오피스텔은 880만원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중도금 50% 무이자의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전용 40~73㎡ 52개실로 구성됐다. 사전청약접수 중이다. 견본주택은 은평구 진관동 235의 28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블랙프라이데이’ D-7… 직구족 잡아라

美 연중 최대 할인행사에 국내 소비자 해외직구 몰려

직구 대행사이트와 연계기획 ‘케이세일 데이’ 진행하는 등 온라인쇼핑몰·백화점 업계 긴장

〈2015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트렌드〉

미국 연간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블랙프라이데이’(국내시간기준 11월 27일)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미국에서는 연중 최대의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도 집중된다.

16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2011년 5225억원 수준이던 해외직구 규모는 2013년 1조5000억원을 돌파해 지난해에는 2조원 이상으로 신장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관세법 개정으로 특급 탁송화물을 이용하는 3kg 이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과세가격이 30% 인하되며 직구 이용 소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직상승하는 해외직구 신장세에 유통업계도 블랙프라이데이 고객잡기에 나섰다.

온라인 쇼핑몰은 직접 해외직구 대행사이트와 연계하는 기획전을 내놓는가 하면 백화점 업계는 국내에서도 해외직구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쇼핑몰, 국내서 직구 가격으로

G마켓, 옥션, G9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직구쇼핑을 준비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먼저 옥션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인 ‘위즈위드’와 함께 기획전을 준비한다. 또 국내에서도 30일까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비슷한 폭으로 할인하는 ‘블랙 에브리데이’, ‘올킬 슈퍼위크’, ‘오늘 하루만 블랙 특가’ 등의 프로모션도 함께한다.

G마켓은 이달 22일까지 해외직구 제품들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해외직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준비했다. 큐레이션 쇼핑몰 G9는 30일까지 해외직구 상품 3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11번가는 해외 인기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진짜 블랙프라이데이’ 기획전을 이달 30일까지 연다.

기획전에서는 ‘오늘의 핫딜’, ‘해외직구 베스트10’ 등 다양한 코너를 선보인다. 오늘의 핫딜 코너에서는 매일 3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해외직구 베스트10 코너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직구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코디바 코코아’(1+1)를 4만원에, ‘SK2 클리어로션’(대용량)을 7만1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백화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잇는 파격 할인

백화점 업계는 지난달 시행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맞이 대규모 세일에 돌입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케이세일 데이’(K-SALE DAY)를 연다.

케이세일 데이에는 총 780여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보다 더욱 큰 규모의 세일 행사를 펼친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패션, 생활가전 등 전 상품군에 걸쳐 100억원 물량의 ‘노마진’(No-margin)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잠실점, 분당점 등 13개 점포에서는 20일~24일까지 아웃도어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판매한다. 소공동 본점에서는 같은 기간 80억원 물량의 겨울 패션 상품을 준비해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H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해 지난해보다 이월 행사 물량과 특가 상품을 2배가량 늘리고 구매 금액대별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벌인다. 또 모든 점포에서 ‘가전 초특가전’을 진행해 삼성, LG, 필립스, 테팔, 쿠쿠 등의 가전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KT&G 복지재단 ‘사랑의 김장나눔’ 스타트

KT&G복지재단이 오는 24일까지 ‘2015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2년째 매년 꾸준히 진행해온 김장나눔은 올해 수도권 20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진행된다. 총 6억원 상당 20만 포기의 김치는 3만여 저소득가정에 전달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김장나눔 행사 모습. /KT&G

강강술래, 농가와 상생 프로젝트

천일염·무 등 농가·산지 직거래 매장 사용·천일염 무료 증정 행사

강강술래는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돕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 농가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천일염 24톤과 무 3400개 등을 구매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매한 농산물은 매장에서 고객들을 위한 식재료로 사용되며, 신림·시흥·역삼·서초·늘봄농원점에서 22일까지 5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 천일염(3kg)을 무료 증정한다.

최종만 강강술래 대표는 “농산물 직거래로 구매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농가와의 ‘상생’ 행보에 더욱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 이벤트코너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시카고’ 공연티켓(1인2매)과 도서출판 길벗의 ‘대한민국 주말여행의 모든 곳’ ‘무작정 따라하기 싱가포르’를 증정한다. /유현희 기자

떡 프랜차이즈 ‘빚은’의 눈물

중기업종 규제에 발목… 2위 추락

떡 프랜차이즈업계 순위가 뒤집혔다.

떡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가맹점 100호점 시대를 열며 줄곧 1위 자리를 놓지 않았던 ‘빚은’이 ‘떡보의 하루’에 밀려 분루를 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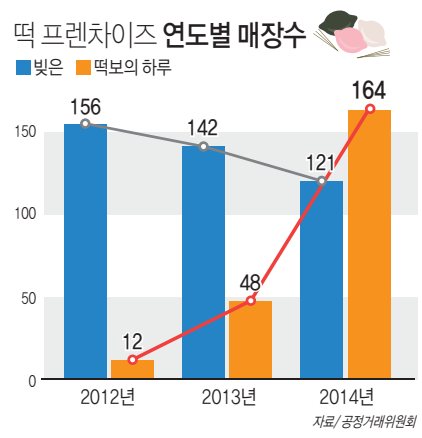
‘빚은’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는 SPC 그룹 계열 삼립식품에서 전개하는 프랜차이즈다. SPC그룹은 베이커리(파리바게뜨), 도넛(던킨도너츠), 아이스크림(배스킨라빈스) 분야에서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올해로 론칭 10년차인 빚은도 초반부터 SPC의 강점을 보여주며 떡 프랜차이즈업계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중기적합업종 지정 등의 암초를 만나면서 신규 개점률이 폐점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브랜드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사이트에 따르면 빚은이 매장수가 급감하며 지난해 말 기준 121개로 164개를 확보한 떡보의 하루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전년도 실적 등록 마감시한이 3·4분기인 것을 감안할 때 순위 변동 사실은 최근에서야 알려졌다.

빚은은 2012년만해도 매장수 156개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지난해 1위로 등극한 떡보의 하루의 같은 시기 매장수는 12개에 불과했다. 2013년까지도 빚은과 떡보의 하루의 격차는 컸다. 그러나 떡보의 하루가 지난해 100개 이상 매장을 새로 열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올 들어서도 빚은의 악재는 이어졌다. SPC측은 빚은이 최근 100개를 갓 넘는 수준까지 매장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는 매장수 감소원인으로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가맹종료 매장들의 재계약 감소 ▲신규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 ▲기존 점주들의 업종변경 등을 꼽았다. 정부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가맹점주들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 업종 전환을 꾀한 것이 매장 축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떡 프렌차이즈 **연도별 매장수**



그러나 빚은은 제품 특성상 국내에서의 악재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정부 규제로 국내에서의 성장이 정체되자 해외 매장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라이센스 브랜드인 배스킨라빈스는 특화된 아이스크림케이크를 앞세워 해외역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먹거리이기 때문에 경쟁자는 많지만 그만큼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해외에 생소한 ‘떡’의 경우는 섣불리 해외진출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 한식세계화가 우선 돼야 떡의 해외 진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삼립식품 관계자는 “2011년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전반적으로 매장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매장수는 줄었지만 가맹점의 대형화와 제품군 확대로 2011년 대비 가맹점당 매출은 24%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 역시 양적 성장보다 점당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새로 나왔어요

에드링턴 코리아

한정판 ‘맥켈란 에디션 넘버 원’

에드링턴 코리아가 10만원대 한정판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에디션 넘버 원’(사진)을 국내에 출시한다.

‘맥캘란 에디션 넘버 원’은 국내에 1000병만 수입되는 한정판 위스키로, 유럽과 미국의 보데가(Bodega)로부터 확보한 각기 다른 8가지 오크통에서 숙성된 원액을 재료로 했다. 한정 판매되는 맥캘란 에디션 넘버원의 소비자가격은 700㎖ 기준 19만원, 알코올 도수는 48%다. /유현희 기자

크리스피 크림 도넛

크리스마스 도넛 4종 한정 판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겨울을 맞아 홀리데이 콘셉트 도넛 3종과 프리미엄 도넛 케익 1종(사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홀리데이 신제품 4종’은 ‘홀리데이 트리(1800원)’, ‘파파 산타(1800원)’, ‘해피 루돌프(2000원)’ 등 도넛 3종과 ‘웰컴 마이홈(3500원)’ 도넛케익 1종으로 구성됐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홀리데이 더즌(1만4500원)’과 ‘홀리데이 콤보(4300원)’, ‘홀리데이 세트(1만4500원)’등 세트상품도 선보인다. /유현희 기자

배상면주가

쌀로 만든 맥주 ‘R4’ 출시

배상면주가는 라이스라거 ‘R4(알포)’(사진)를 출시했다.

배상면주가의 신제품 R4는 쌀과 홉, 배상면주가의 특제누룩으로 발효시킨 신개념 맥주다. R4는 보리를 사용하지 않고 100% 쌀만을 사용했으며, 맥아를 누룩으로 대체했다.

R4는 제품의 네 가지 특징인 RICE, REFRESH, RICH, REAL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100% 라이스라거 R4의 도수는 5.8%로, 용량은 330㎖다. /유현희 기자

스킨푸드

‘스누피 리미티드 에디션’ 선보인다

스킨푸드가 탄생 65주년을 맞은 캐릭터 ‘스누피’와 함께 한 ‘스누피 리미티드 에디션(사진)’ 18종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스누피 리미티드 에디션은 스누피를 비롯해 찰리브라운, 우드스탁, 루시 등 인기 만화 ‘피너츠(Peanuts)’ 속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습을 담은 패키지가 특징이다. 총 18개 제품으로 기초 제품 7종, 색조 및 네일 제품 11종으로 구성됐다. /유현희 기자

中 여행때 '옵션 압박' 사라진다

관광공사, 12개 여행사와 맞손
불필요 추가 경비 등 제외키로

지난달 24일 경북 김천시 청암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 /김천시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의 가격 거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은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한 뒤 현지에서 추가 경비를 유도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와 12개 여행사(이하 참여여행사)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 대해 '미 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폐지 및 선택관광 대체일정 합리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시행 이후 여행상품 가격 표시 등 국외여행상품의 정보 제공 방식은 많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저가상품이 일반화된 중국·동남아 현지 여행지에서는 선택 관광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소비자의 불만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국 장가계의 천문산케이블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툭툭이 투어, 베트남 하롱베이의 비경관광 등은 소비자가 추가 경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중요 관광지 여행이 쉽지 않다. 선택 관광 항목으로 일반화된 마사지, 각종 쇼 관람, 시티투어 등의 운영도 '차량 대기' 또는 '주변 휴식'처럼 대체 일정이 애매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소비자의 이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과 12개 여행사가 참여해 선택관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개선책을 발표하고 이를 2016년 1월 상품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먼저 추가 경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5개 선택관광 항목은 기본 상품가격에 포함하거나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선택관광은 기본일정 종료 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중간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의 애매한 대체 일정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여행 취지를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JTI코리아 '스모킹 매너' 캠페인

JTI 코리아가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로 배려하는 흡연 문화 조성을 위해 'JTI 스모킹 매너 캠페인'을 홍보하며 무료 커피와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생각하는 청개구리, 서울시청에 떴다

한국암웨이·하자센터 함께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열어

한국암웨이가 14일, 15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활짝 라운지에서 서울시, 하자센터 등과 공동으로 창의인재육성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대표 프로그램인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열었다. /한국암웨이

한국암웨이는 지난 14, 15일 양일간,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활짝 라운지에서 서울시, 하자센터와 공동으로 창의인재육성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대표 프로그램인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2012년부터 민관산학 협동으로 진행되는 기업 최초의 창의인재육성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한국암웨이는 재원마련과 운영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는 생각하는 청개구리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1년에 총 4회 도심 속 계절놀이터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는 일반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을 활용한 창의력 키우기 놀이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창의놀이터의 특징은 아이들은 기존의 고정된 놀이기구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소품, 소도구 등 각종 재료를 이용해 스스로 놀 거리를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활짝 라운지에는 어린이가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뚝딱뚝딱 탐험공방'과 '우당탕탕 탐험기지' 등이 마련됐다.

뚝딱뚝딱 탐험공방에서는 참가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모여 흙, 나무, 실, 종이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5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고, 목공, 바느질, 직조, 재활용 기술 등 탐험에 필요한 6가지 기술을 직접 배웠다.

놀이 도구를 직접 만들고 탐험 기술을 배운 어린이들은 도르래 그물, 파이프 동굴, 무지개 다리, 선장놀이 등의 탐험 설치물로 구성된 '우당탕탕 탐험기지'에서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즐겼다. 이러한 설치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것들로 서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협동심과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한국암웨이 박세준 대표이사는 "한국암웨이는 좋은 생활, 좋은 사회로 향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청개구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며 "한국암웨이는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어울려 놀고 배우고 성장해 가는 창의적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대여성암병원 이사라 교수
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최우수'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이사라 교수.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는 이사라 교수가 지난 1일 열린 제25차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에서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사라 교수는 이날 학회에서 국립암센터 의공학연구과 김광기 박사팀과 함께 진행한 '복강경하 자궁근종(Uterine Myoma) 절제술에서 3D 자궁근종 영상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아직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는 독창적인 연구다.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자궁근종 수술에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번에 개발한 3D 영상화 프로그램은 별도의 추가 장비 구입 없이 기존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의 위치, 근종 주변의 혈관 주행을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합성해 입체적으로 근종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사라 교수는 "여러 개의 근종이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입체적으로 구성된 근종들과 자궁내막의 상호적 위치를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 자궁내막의 손상을 피하고 큰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식품·축산물 '해썹 인증' 하나로 합친다

식약처 '중복규제 해소' 일환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돼있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썹 인증 통합으로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인증 심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육류는 고기함량 50% 이상이면 축산물 HACCP을 받지만,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돼 고기 함량이 50% 이하면 식품 HACCP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인증을 받은 축산물(식품)과 같은 주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은 별도의 현장 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가로 식품(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썹 인증이나 사후관리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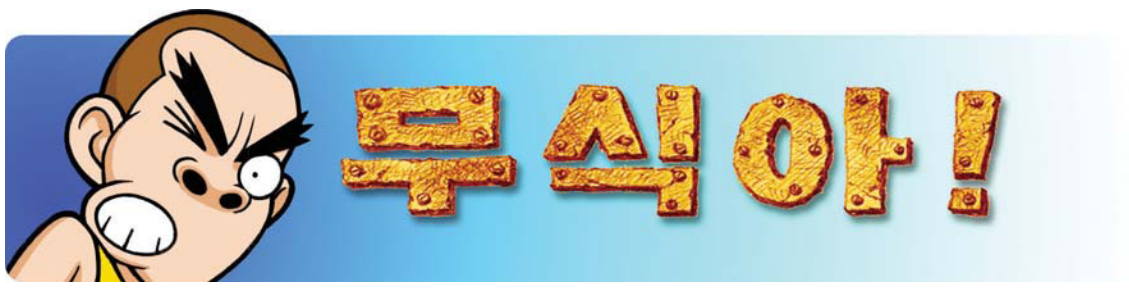
만약 식품과 축산물 인증을 같이 받았다면 사후관리 평가는 두 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만 사후관리를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두 기관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고시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시가 제정되면 업무 효율성이 강화되고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금강제화 사시면 황금구두 드려요"

16일 금강제화 명동본점에서 모델이 순금 100돈으로 제작한 2000만원 상당의 황금 구두 2개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금강제화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금강, 랜드로바 골든세일' 진행한다고 전했다. 모델들이 16일 오전 서울 명동점에서 순금 100돈으로 제작된 황금 구두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5	3	4	8	1	2	7	9	6
6	9	2	5	7	4	3	1	8
8	1	3	2	9	6	5	4	7
1	4	5	9	6	3	2	8	7
2	8	7	4	5	1	9	6	3
9	6	1	7	3	8	4	5	2
7	2	8	6	4	5	1	3	9
4	5	9	3	2	7	6	1	8
3	7	6	1	8	9	5	2	4

5	3	4	8	1	2	7	9	6
6	9	2	5	7	4	3	1	8
8	1	3	2	9	6	5	4	7
1	4	5	9	6	3	2	8	7
2	8	7	4	5	1	9	6	3
9	6	1	7	3	8	4	5	2
7	2	8	6	4	5	1	3	9
4	5	9	3	2	7	6	1	8
3	7	6	1	8	9	5	2	4

						5		3
7						2	6	1
3	4	5	1					
				8			9	4
9				3				7
4	1			5				
					3	7	8	2
8	3	2						6
6		7						

9		6	5				1	
	5				1	6	3	
2								
	9			2				1
4	3						9	2
8				4			5	
								7
	7	4	8				2	
	2				3	1		5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직장 눈높이 낮춰도 취업이 어려워요
첫 직장에 올인… 이후엔 하나씩 잘 풀려요

꿈 가득 남자 88년 11월 17일 음력 저녁9시10분

Q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꿈 가득 남자로 88년 11월 17일 음력 저녁 9시 10분생입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궁금합니다. 한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언제쯤이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직장 운이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생활이 어려우면 다른 길로 가야 하나요.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데도 힘드네요. 답답한 마음이라 선생님께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하는 일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직업군에 상관(傷官)의 작용으로 관성(官星:직업)을 극하여 자아를 의구심하고 걱정을 많게 하거나 내 그릇보다 큰 것을 욕심내어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명식(사주구조)에 병화(丙火)라는 태양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 형상이므로 큰 사주가 빛을 발휘 못 하고 있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일덕(日德)이라 하여 성품이 착하고 자비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지나친 고집으로 타인과 불화하기 쉽고 총명하고 경쟁심이 있더라도 2류 성취가 많고 뒤늦은 성공취득이 있습니다. 천을귀인(天乙貴人:귀인의 도움)이 있으나 외양내음(外陽內陰)으로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아 속으로 수심이 가득할 수 있는데 당분간 취업 운은 천간(天干)에서 충살(冲殺:충돌)을 당하고 있으며 귀문살(鬼門殺:변화)이 작용하여 다른 곳을 가도 마음이 안정 안 되기에 정서적으로도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주변에 운칠기삼(運七氣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사가 운이 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런 말을 가벼이 여기기보다는 운을 믿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성공 할 수 있다고 하여 무한한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접고 오라고하는 곳의 순번에 의해 일단 열심히 다니십시오. 다니다 이직해야지의 마음보다는 계속 다닌다는 마음으로 입사를 하면 하나하나씩 잘 실천하게 됩니다. 뜻하는바가 이루어진 시간이 지나 먼 미래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음양살(陰陽殺)이 있어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돈까지 나갈 수 있으니 언제인가를 논하지 말고 평생 주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1월 17일 (음 10월 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60년생 밀어 부치면 화를 입기 십상입니다. 72년생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4년생 고생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소 49년생 인내를 가지도록 하세요. 61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73년생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85년생 지레 겁먹고 체념하지 마세요.

호랑이 50년생 겸허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62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74년생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86년생 동료와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평탄한 길을 왔지만 곧 시련이 찾아옵니다. 63년생 윗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눈앞의 욕심에 현혹되지 마세요. 87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 하세요.

용 52년생 어긋남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64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76년생 적당 주의는 금물입니다. 88년생 중의 길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 53년생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길합니다. 65년생 성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세요. 77년생 바라는 일이 처음엔 뜻처럼 되지 않습니다. 89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합니다.

말 54년생 남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세요. 66년생 행운이 찾아 올 것입니다. 78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세요. 90년생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양 55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67년생 처음에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79년생 소심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91년생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입니다. 68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합니다. 92년생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닭 57년생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69년생 지금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81년생 남과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93년생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길합니다.

개 58년생 나서지 말고 가만히 참으세요. 70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82년생 묵묵히 물러나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94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흉합니다.

돼지 59년생 흉한 인간관계는 빠르게 정리하세요. 71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입니다. 83년생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95년생 일처리를 신중하게 하세요.

대한민국을 담다!

2015.11.21(토) 10시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

'8의 김치' 프로젝트

100% 국산재료로 만든 진정한 명품 우리김치!
전국 8도의 착한 생산자들과 깊은 손맛의 김치 명인이 함께 김치를 담다

'8의 김치' 사전구매 및 체험참여 신청
www.woorikimchi.co.kr

infomaster
Agenda Business Company

검색창에서 8의 김치 를 검색하세요

이미 시작한 연기, 최고 배우 되고 싶어요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황 정 음

엑스트라 인생 사는 폭탄녀 변신
몸 사리지 않는 열연 '유종의 미'
무거운 역할서 '로코퀸' 반열에
연기 원동력은 시청자 관심·사랑

"항상 작품 시작할 때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연기해요.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시청률이 높지 않아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웃음)"

지난 12일 서울 장충동 한 호텔에서 최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여자 주인공 황정음(30)을 만났다. 인터뷰 내내 웃음꽃이 만개한 황정음은 드라마 속 캐릭터 김혜진을 꼭 빼닮았다.

황정음은 2005년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을 시작으로 SBS '자이언트'(2010), MBC '내 마음이 들리니'(2011), KBS2 '비밀'(2013), MBC'킬미, 힐미'(2015)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믿·보·황(믿고 보는 황정음)'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첫회 시청률이 4.8%(이하 닐슨코리아 기준)였어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크게 실망하거나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저는 첫회만 보고 대박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작가님과 감독님을 믿었고 캐스팅이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역부터 혜진이의 부모님까지, 그리고 '모스트' 사원들까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긋남 없이 역할을 잘 소화해준 덕분에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예뻤다'는 '지붕뚫고 하이킥'을 집필한 조성희 작가와 정대윤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역대급 폭탄녀로 '역변'한 여자와 반대로 뚱보에서 훈남으로 '정변'한 남자의 일과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황정음은 서른이 된 현재 누구 하나 거들떠 봐주지 않는 엑스트라 인생을 살고 있는 김혜진을 연기했다. 극 초반부터 망가짐을 불사하고 다채로운 표정연기와 몸 사리지 않는 열연을 보여줬다. 그래서였을까. 마지막회 시청률은 15.9%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솔직히 촬영 초반에는 많이 우울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혜진이 더 폭탄녀였거든요. 하지만 감독님과 작가님이 생각해놓은 김혜진의 모습이라면 따라한다고 생각했어요. 걱정했던 건 '이런 못생긴 여주인공을 보고 시청자가 채널을 안 돌릴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못생겼지만 궁상맞지는 말자'였어요. 못생겼지만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김혜진을 연기했죠. 어느 순간 못 생긴 모습이 예뻐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황정음은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보여준 코믹한 이미지가 굳어질까봐 일부러 가벼운 역할은 피해왔다. 그의 연기 인생 중 가장 좋아하는 역할도 '눈물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비밀'의 강유정이다. 이작품에서 황정음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감옥행을 선택한 후 아이를 잃은 엄마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다. 하지만 지금 황정음이 가장 사랑하는 배역은 김혜진이다. 황정음과 상대역인 박서준의 달달한 로맨스에 시청자는 열광했다. 작품은 그를 '로코(로맨틱 코미디)퀸' 반열에 올려놨다.

"사실 시트콤이 제일 어려워요. '지붕뚫고 하이킥'을 찍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죠. 그때만큼 다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조성희 작가님의 작품이라 믿고 출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연기에 대한 재미를 또 한번 느꼈어요. 제 연기의 원동력인 시청자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기뻐요."

'그녀는 예뻤다'라는 과거형의 제목 탓이었을까, '지붕뚫고 하이킥'의 반전 결말로 충격을 안긴 조성희 작가의 작품이었던 탓일까. 항간에 결말을 놓고 새드엔딩일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황정음은 "결말이 어떻게 나오든, 내용이 어떻게 끝을 맺든 그건 작가님과 감독님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기자 몫이 아닌 일에 간섭하다 보면 작품이 산으로 간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해준 배우라는 직업에 항상 감사함을 느껴요. 어차피 배우로 살 거라면 기왕 시작한 것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요." 욕심 많은 그녀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이와이 슌지 감독, 기획전 위해 내한

내달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미개봉작 등 전작 상영회 가져

일본의 이와이 슌지 감독(사진)이 다음달 열리는 기획전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엣나인필름은 다음달 10일부터 '이와이 슌지 기획전-당신이 기억하는 첫 설렘'을 개최한다. 이에 이와이 슌지 감독은 다음달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물과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러브 레터' '4월 이야기' '하나와 앨리스'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등의 영화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빛을 이용한 섬세한 영상미,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으로 '이와이 월드'라 불리는 자신만의 연출 세계를 구축해왔다. 영화 연출은 물론 제작, 각본, 음악, 그리고 소설 집필까지 다채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와이 슌지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전작은 물론 TV 시리즈까지 상영한다. 기존 개봉작은 물론 미개봉작과 TV 시리즈를 포함한 12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다. /장병호 기자

서울시향, 2016년 시즌 티켓 오늘부터 판매

10개 패키지 36개 공연으로 구성
화려한 라인업…조성진과 협연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17일 오전 11시부터 2016년 시즌 정기공연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

서울시향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기공연 사전 예약제도를 진행해왔다. 관객들의 꾸준한 호응 속에서 시즌 시작 전 정기공연 티켓의 약 60% 이상을 선판매하는 등 안정적인 시즌을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시향의 2016년도 시즌은 모두 10개 패키지 36개 공연으로 구성된다. 19개 관현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관현악 전체 패키지 2종을 비롯해 시즌 주요 공연을 4~5개로 묶은 개별 패키지 5종, 서울시향 단원들의 연주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실내악 패키지, 아르스 노바 패키지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3개 이상의 공연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패키지'를 올해도 운영한다.

협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특히 화제를 모은 조성진과 최예은·김다솔·김수연 등 국내 젊은 음악가는 물론 유자 왕·쇼지 사야카·슈페이 양 등 아시아의 젊은 연주자들도 두루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시향의 2016년 시즌 티켓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향 유료회원 대상으로 관현악 전체 패키지의 판매를 시작한다. 19일 오전 11시부터는 개별 패키지 판매를 진행한다. '나만의 패키지'는 24일 오전 11시부터 판매한다. 36개 공연별 개별 티켓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문의: 1588-1210) /장병호 기자

TV 하이라이트

따끈따끈 순두부찌개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쌀쌀한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순두부찌개를 살펴본다. 해물, 만두, 김치, 햄, 명란 등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맛도 영양도 천차만별인 순두부찌개를 보다 손쉽게 만들어 먹는 비법을 소개한다. 순두부찌개를 더욱 맛있게 해주는 특별한 양념장 레시피도 공개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6:30 플랜맨	06:3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05:10 내 고향 스페셜		05:10 특선 어부의 만찬 스페셜	05:10 충전 힐링 라이프		06:00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신인류 식품관 스페셜	06:10 명단공개 (재)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10 응답하라 1997 (재)	08:30 본즈 시즌10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미나문방구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10 좋은아침		08:50 문제적 남자 (재)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00 SBS 뉴스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0:55 별별가족	10:40 지구촌 뉴스	09:40 기분 좋은 날	10:30 SBS 생활경제	10:15 마녀사냥 (재)	10: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1:30 컨저링	11: 00 히든 페이스
11:00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00 오 마이 비너스 (재)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1:5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30 행복한 지도 (재)		11: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2:00 KBS 뉴스 12	12:05 1 대 100 (재)	12:00 MBC 정오뉴스	12:00 SBS 12뉴스	13:10 비정상회담 (재)	12:20 명단공개 (재)	13:50 기술자들	12:50 나의 사랑 나의 신부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2:20 TV속의 TV	12:50 불타는 청춘 (재)				
13:50 별별가족 (재)	14:00 KBS 뉴스타임	13:20 문화사색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4:35 JTBC 뉴스 현장	13:20 응답하라 1988 (재)		
14:00 2015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배드민턴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4:05 내꺼야 폴록 (재)	15:00 SBS 뉴스				
15:55 튼튼생활체조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4:30 꾸러기 식사교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15:50 4시 사건 반장			15:00 전우치
16:00 오늘의 경제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10 똑?똑! 키즈스쿨			16:50 콩트앤더시티 (재)	16:10 소림사 2014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6:00 TV 유치원	15:55 꼬마돌 도도	16:0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17:00 KBS 뉴스 5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40 빅 피쉬
17:20 시사진단	16:40 동물의 세계	17:00 MBC 이브닝 뉴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8:00 6시 내고향	17:00 VJ 특공대 (재)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7:30 토닥토닥 꼬모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8:00 문제적 남자 (재)	18:30 잭 라이언:코드네임 쉐도우	20:00 트라플 엑스 2 - 넥스트 레벨
19:00 KBS 뉴스 7	18:00 글로벌24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8:00 생방송 투데이	19:55 JTBC 뉴스룸	19:40 오마이갓		
19:30 이웃집 찰스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5 MBC 뉴스데스크	19:20 돌아온 황금복				
20:25 우리 집 꿀단지	19:50 다 잘될 거야	20:55 아름다운 당신	20:00 SBS 8 뉴스	20:45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0:40 현장토크쇼 TAXI	20:4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1:00 KBS 뉴스 9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1:30 리얼스토리 눈	20:55 SBS 뉴스토리		21:40 집밥 백선생		22:00 오토마타
22:00 시사기획 창	20:55 1 대 100	22:00 화려한 유혹	22:00 육룡이 나르샤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2:00 오 마이 비너스	23:10 PD수첩	23:15 불타는 청춘		23:00 풍선껌	23:0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0	
24:35 독립영화관 〈여행자〉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05 MBC 뉴스 24		23:0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24:20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재)		24:10 마담뺑덕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4:15 MBC 100분 토론	24:35 나이트라인	24:35 타인의 취향 (재)			

운영 합리화로 새는 돈 막자

이상헌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경기가 어려울수록 운영 합리화가 필요하다.

"매장의 매출이 곧 그 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라는 논리가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매출액 자체로 업체나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이 매출액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량적 가치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많이 팔면 된다는 식의 경영기법으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현실적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들어 많은 외식기업들이 장사는 되는데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을 종종한다

이는 원가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의 기본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판매가 대비 원부재료비용에 대한 다운사이징 전략이나 구매요인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과거의 외식환경과는 달리 급속하게 증가하고 인상되는 인건비 제경비 원부재료비등 경상비에 대한 상승이 판매가의 인상률을 선회함으로써 점점 경영환경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출요인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과거와 같이 얼마팔면 얼마 남는다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경영이 아직도 대부분의 외식업체의 경영방법이라면 많이 팔아도 남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이제 외식업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경영기법을 요구하고 있다. 원재료비의 분석은 물론 고객의 트렌드변화, 그리고 외식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경영방법도 바꾸지 않는다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

매출의 꾸준한 증대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방법의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 면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닭강정전문점인 가마로강정의 경우 판매개념을 기존의 마리에서 인분 방식으로 판매의 효율성을 높인 합리적 방식의 변화 사례다. 대·중·소의 판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 맞춘 전략을 꾀하는 한편 다양한 소스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을 지향한다.

최근의 판매방식이 소비자를 위한 구매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 맞춤 판매가 실속형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영 받고 있는 것이다.

샌드위치&커피전문점 멜랑제는 고객 선호도의 샌드위치를 직접 매장내에서 조리하는 매대판매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즉석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인력의 효율성을 강조한 판매형태로 인건비의 효율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본사인 CK에서 샌드위치의 다양한 재료를 직접 가공 생산해서 공급함에 따라 주방의 효율성을 실행하고 있다.

창업은 수치와 효율성과의 싸움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매장운영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社說

폭력시위로 이룰 것은 없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번 폭력시위는 경찰이 집회 신고를 불허한 광화문 방면으로 시위대가 진출하려다 차벽에 막히자 저항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차벽 버스를 밧줄로 묶어 당기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돌파를 시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도심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횃불까지 등장하고 경찰버스를 방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맞서 경찰은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진압을 하는 바람에 이를 맞고 중태에 빠진 사람도 있다. 근래에 보지 못했던 격렬한 시위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시위주최측이 폭력시위를 통해 얻으려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돌아보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 폭력시위의 명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일 가운데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쉬운 해고'를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이미 여론의 상당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폭력 시위를 감행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나라를 다시 독재국가로 바꾸려 한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시위를 해도 충분할 것이다.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시민의 호응을 이끄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시위주최 측에서 박근혜 정부에 경고를 주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야겠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폭력이 사용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뿐이다. 무엇보다 중도적 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 특히 보수강경파가 힘을 얻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정부의 태도가 더 완강해질 수도 있다. 결국 폭력시위를 통해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한풀이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국가에서 주장과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다. 시민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필요도 때때로 있다. 하지만 폭력만은 피해야 한다. 진정한 힘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스타가 남긴 숙제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5'가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지난 13일에는 하루종일 비가 오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폐막일 15일까지 4일간 총 20만 9566명의 관람객이 찾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지스타가 예년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지만 대형 게임사들의 불참으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했다.

주요 게임사들이 지스타를 외면하면서 콘텐츠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부족함을 보였다. 지스타와 같은 대형 게임쇼는 온라인게임이나 콘솔게임의 신작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시연을 하는 최적의 장소다. 그러나 한국 게임산업의 무게중심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하면서 그 매력이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넥슨과 엔씨소프트, 네시삼십삼분,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SCEK) 외에는 대형 부스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학교들의 홍보관이나 중소 개발사의 부스, 아케이드 게임 부스들이 적지 않은 규모로 전시장을 채우고 있었다.

특히 모바일 게임 1위 업체인 넷마블게임즈를 비롯해 컴투스, 게임빌, NHN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웹젠, 스마일게이트 등 주요 게임사들은 B2C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나마 네시삼십삼분이 모바일 게임사로서는 유일하게 대형 부스를 마련했지만 모바일 게임 산업을 한 눈에 살펴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게임사들의 불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실적이 좋지 않고 참가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스타는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들을 위한 축제다. 마케팅 수단의 연장선상에서만 본다면 내년 지스타도 비슷할 것이다. 모바일 게임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과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지스타는 결국 소비자도 외면할 것이다.

/hm0108@

배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생활법률

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부하직원 B씨의 부적격 행위를 목격하고 고민에 빠졌다. B씨는 '00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해 '00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있었다. B씨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가 고위 임원의 조카라는 소문이 있어 행동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 같아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단지 배임행위를 모른 척했을 뿐인 A씨.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A씨처럼 범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한 사람을 부작위범이라고 말한다.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감싸주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식적인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고의성이 있는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다.

특히 작위에 의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B씨의 범행을 인식한 A씨가 선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임행위를 방치했다면 배임죄의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부작위범 사례로는 △입점 점포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범행이 계속된 경우 등이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새만금' 등 굵직한 사건 판결 의미·배경·논쟁 과정을 되짚다

국내 첫 여성대법관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출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창비)를 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그가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내린 판결 중 10개를 추려내 그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은 책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는 그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학기에 10개 정도 판결을 뽑아서 강의하는데 그 강의를 토대로 쓴 책"이라고 소개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 책에서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 김 할머니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으로 지배권 세습과정 이슈를 부각시킨 삼성사건, 학생의 종교 자유 문제가 불거진 'K군 사건', 경제적 가치와 환경의 가치가 충돌한 새만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과 판결을 되짚어봤다.

그는 자신이 재직하면서 관여한 판결 86건 중 당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도 흥미를 느낄만한 10건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대법원 재직 기간 치열하게 논쟁한 사건"이라며 "다수의견을 낸 것도 있고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독자에게 어려운 법 용어와 법 논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외국 사례나 문학작품, 영화 등을 총동원했다. 판결 이후의 변화와 당시에는 밝힐 수 없던 개인적 견해나 비판, 반성 등도 담겼다.

그는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수의견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연합뉴스

모임

2015 미래IT포럼(BIITA·북정회) 송년회… 주제는 '화통'

1. **일 시** : 2015/11/26(목) 19시
2. **장 소** : 용사의 집(용산역옆)
3. **대 상** : 북일고·북일여고 정보통신관련업 종사자
4. **행사내용(강연)** : Bestseller 작가 (박용후) "관점을 디자인하라"
5. **연락처** : 010-9074-2403 (북정회사무총장)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바이오생약심사부장 김대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상부(내정)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선임연구본부장 서진호 △ 필드로봇연구본부장 서갑호 △ 해양로봇연구본부장 이계홍 △ 제조로봇연구본부장 정구봉 △ 전략기획실장 손동섭 △ 기업지원실장 민정탁 △ 경영지원실 인사구매팀장 이상민 △ 경영지원실 재무시설팀장 권봉조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학술정보관장 손용택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장 정상열

부고

▲ 안내묵씨 별세, 안상욱(바텍 대표이사)·상희(대신증권 팀장)·상곤(금강주택 차장)·미연씨 부친상, 김호선씨 장인상 = 1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 신경순씨 별세, 조원재·원동(전 청와대 경제수석)·원숙·태희·순영씨 모친상, 조효남씨 시모상, 석영대·김승동씨 장모상 = 16일,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18일 오전 02-3010-2292

▲ 변종수씨 별세, 변창수(청주시의원)씨 부친상 = 15일 오전 11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43-279-0150

▲ 이미선씨 별세, 박재호(새정치민주연합 부산 남구을 지역위원장)씨 부인상 = 15일 오후 10시, 부산 성모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51-933-748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박인비 5승… 세계 1위 보인다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우승〉

시즌 최종전서 리디아 고와 '올해의 선수' 두고 격돌

'골프 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5승을 거뒀다.

박인비는 15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파72·680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기록하며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는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했다. 15언더파 273타의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박인비는 올해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를 시작으로 5월 노스텍사스 슛아웃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메이저 대회인 6월 KPMG 여자 PGA챔피언십, 8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연달아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약 3개월 만에 승수를 보탰다.

또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을 획득해 이 부문 1위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격차를 3점으로 좁혔다.

박인비는 상금 부문에서도 257만96달러를 기록해 리디아 고의 275만8417달러와 격차를 18만8000 달러로 좁혔다.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50만 달러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박인비는 69.433타로 69.449타의 리디아 고를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올해 남은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유일하다. 박인비와 리디아 고의 올해의 선수·상금·평균 타수 부문 경쟁은 이 대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각종 타이틀 부문에서) 기회의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우승을 못했다면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며 올해의 선수상을 포함한 상금, 평균 타수 부문의 욕심을 드러냈다.

이어 "시즌을 마치기 전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들고 가고 싶다"며 "많은 팬이 응원해주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올해 신인왕인 김세영(22·미래에셋)이 13언더파 275타로 단독 3위를 차지했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은 11언더파 277타로 단독 4위에 올랐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골프 여제' 박인비가 15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AP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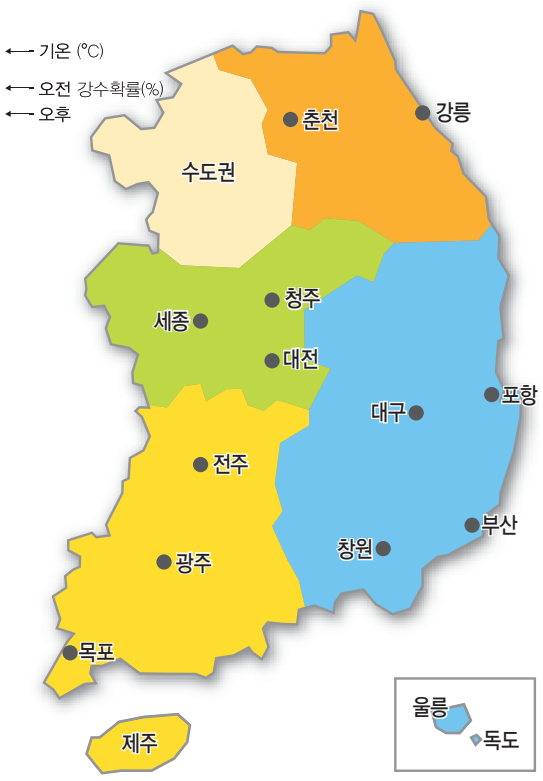
해뜸/07:13 | 해짐/17:20

11월 17일 요일 (음력 10월 7일)

아침에 대부분 비 그쳐… 일부는 밤에 다시 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 일부·제주도는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10/18	60	20
강릉	10/16	70	60
세종	12/17	60	50
대전	13/17	70	30
청주	12/17	60	30
광주	13/17	30	30
전주	14/17	70	30
목포	15/17	90	90
제주	17/19	60	60
대구	14/17	60	30
창원	16/18	70	30
포항	14/16	80	60
부산	16/20	70	60
울릉	13/16	7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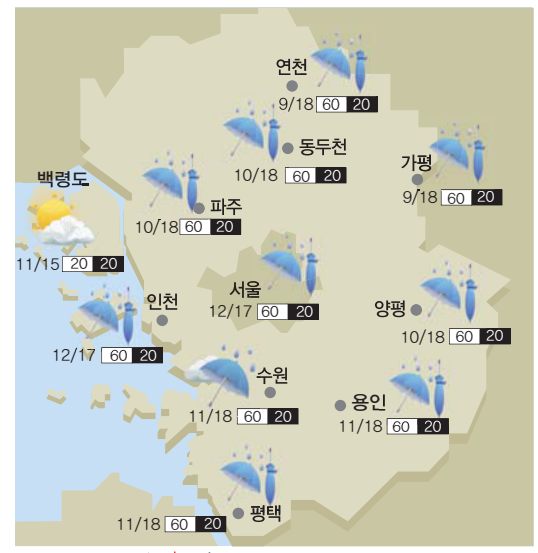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13~10℃

자외선 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11:33/ – : –	05:00/17:49
인천	07:47/20:12	02:01/14:03
울산	10:12/23:24	04:13/16:47
군산	06:04/18:39	00:58/12:51
목포	05:17/17:57	10:27/23:1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빙속여제' 이상화, 간발의 차로 아쉬운 은메달

여자 500m 2차 레이스서 0.05초 차이로 金 놓쳐

'빙속여제' 이상화(26·서울일반)가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월드컵 1차 대회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0.05초 차로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이상화는 16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6초99를 기록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은 중국의 장훙(36초94)에 돌아갔다.

이상화는 지난 14일 1차 레이스에서 36초96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2차 레이스 우승까지 노렸지만 장훙과 0.05초 차로 우승의 기쁨을 넘겨줘야 했다.

이날 마지막 조인 10조에서 장훙과 함께 레이스에 나선 이상화는 초반 100m를 20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10초32에 주파했다. 하지만 나머지 400m를 26초26에 마쳤다.

함께 레이스를 펼친 장훙은 초반 100m(10초76)를 이상화에게 뒤졌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을 26초1에 주파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상화는 아쉽게 2차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놓쳤지만 이번 월드컵 1차 대회 500m 기록이 모두 36초대에 진입했다. 2013년 11월 세계기록(36초36)을 작성할 때와 비슷한 양상에 접근한 만큼 지난 시즌 막판 부진을 씻고 부활의 조짐을 보여줬다.

/장병호 기자

이상화가 16일(한국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월드컵 1차 대회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0.05초 차로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AP 연합뉴스

슈틸리케 "라오스, 쉽게 이긴다는 생각 버려야"

라오스와의 일전을 앞둔 울린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사진)이 "라오스를 쉽게 이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각오를 나타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7일 오후 9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6차전 라오스와의 경기를 갖는다. 이 경기는 올해 마지막 A매치다.

경기를 하루 앞둔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우리 조의 상황을 본다면 물론 한국이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라오스는 원정에서 대량 실점했지만 홈에서는 2골 이상 내주지 않았다. 쉽게 이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도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나설 것이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전승하고 있고 올해 1패만 했다. 결국 우리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라오스가 홈에서 잘한다기보다는 원정에 나선 팀들의 준비 상황이 경기력에 더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우리는 항상 홈에서 경기한다는 자세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오스는 월드컵 2차 예선 G조에서 1무5패로 최하위에 머물며 최종예선 진출이 이미 무산됐다.

/장병호 기자

전인지, 여자골프의 대형 스타로

한·중·일 우승 맹활약 내년 LPGA 활약 기대

한국여자골프가 새로운 대형 스타를 배출했다. 전인지(21·하이트진로·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여자골프는 지난해 김효주(20·롯데)라는 걸출한 스타를 탄생시켰다. 김세영(22·미래에셋)과 백규정(20·CJ오쇼핑)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했다. 이에 올해에는 누가 새로운 스타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전인지는 올 시즌 한국여자골프(KLPGA) 투어 초반 고진영(20·넵스), 김민선(20·CJ오쇼핑)과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올해 두 번째 대회인 삼천리 투게더 오픈에서 전인지가 가장 먼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고진영과 김민선도 질 수 없다는 듯 잇따라 우승을 신고했다. 여기에 이정민(23·비씨카드)까지 위너스 멤버에 가입하면서 2015년은 유례없는 춘추전국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5월부터 전인지의 상승세가 시작됐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의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한 전인지는 이후 상승세를 줄곧 이어갔다. 7월에 열린 LPGA 투어 최고의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제패했다. 얼마 뒤 열린 국내 투어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까지 우승했다. 한국·미국·일본의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전인지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일본여자오픈에서도 우승했을 뿐 아니라 국내 무대에서 모두 5승을 쓸어 담았다. 다승과 상금, 평균타수, 대상까지 휩쓸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여자골프에서는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오른 선수가 그 다음해 LPGA 투어에 진출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전인지도 US여자오픈 우승으로 내년 미국 무대 출전권을 확보한 만큼 LPGA 투어가 확실시 된다.

/장병호 기자

/출처=베를린시

샤를 로텐부르크

미테 / 티어 가르 텐

미테

프렌 츠 라우 베르그

크로이츠베르그

사회융합 본보기… '베를린'의 주거 해법은

"공공주택 임대료, 소득 따라 내라"

임대료 최고액 '소득의 33%' 제한하니
베를린 인구 10명 중 8명이상 임대 찾아

'서울리츠'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한국형 공공임대의 본보기 삼아야

주거 안정은 세계 모든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특히 대도시 저소득층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이들은 주택 임대료가 매년 오를 때마다 조금씩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다. 직장은 도심에 남아 있으니 출·퇴근길은 더 멀고 고단하다. 대도시 자체로도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요즘에는 싱글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거 문제는 대도시의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연히 대도시마다, 나라마다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베를린시는 저소득층의 소득에 따라 공공주택 임대료를 정하기로 입법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면서 지난해 공공 임대료는 민간 임대료보다 높아졌다. 민간은 ㎡당 5.84 유로(7336원), 공공은 5.91 유로(7424원)다.

공공주택에 혼자 살면 50㎡(15평) 이내에서 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의 한 달 임대료는 295.5 유로(약 37만원), 1년이면 3546 유로(약 445만원)다. 1년 수익이 1200만원의 저소득층이라면 400만원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베를린시는 혜택이 적용되는 연간 최대 수입 규모를 싱글 세대의 경우 1만6800 유로(약 2100만원)로 정했다. 더 고급의 공공주택을 임대해 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는 연간 수입 2만5200 유로(약 3100만원) 내에서 65㎡(20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를린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체 세대의 54%가 싱글 세대다.

베를린시 약 350만명의 인구 중 85%인 300만명가량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지난해 민간과 공공의 임대료 평균 시세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 법의 영향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질이 높고 공급만 충분하다면 저소득층이 민간 임대주택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베를린시는 '하우징 프로젝트'를 추진, 시내 주거지역마다 질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무려 12만5000 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현재의 28만 가구에서 향후 40만 가구로 늘리기로 이번 입법 과정에서 명문화했다. 이 중 55%는 저소득층에 제공할 방침이다.

베를린시는 시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융합된 도시"라고 천명했다. 저소득층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도심에서 부유한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서울시의 주거 해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리츠'가 대표적이다. 중앙정부의 대책은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서울리츠와 대상이 겹치는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방식이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표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추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면서 장기주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대략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해법은 공급을 늘릴수록 혜택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관건은 수요만큼 공급을 맞출 수 있느냐다. 다만 당국이 열심히 해도 사각지대는 남게 된다. 사각지대 자체를 없애는 베를린시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베를린시의 해법을 두고 "세계에 주거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43호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라이프]
'로코퀸' 황정음
16

14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 21일까지 개최

도심의 부활… 을지로, 조명 받고 빛나다

도심창조산업 디자인 프로젝트

낙후된 도심 상권 부흥에 초점

전시·세미나·할인 행사 등 마련

지속적 행사로 상권 부활 기대감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에 있는 세운대림상가는 한때 국내 조명산업의 메카로 불렸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던 이곳은 2000년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산 조명의 유입과 함께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각양각색의 조명들이 제 빛을 잃어가면서 을지로는 해가 지면 암흑만 가득했다.

지난 13일 저녁 을지로 세운대림상가에 어둠을 깨는 새로운 서광이 비쳤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중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축제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이 불꺼진 거리를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았다. 이날 세운대림상가 데크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창식 중구청장 등이 참석해 조명거리의 새 단장을 축하했다.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는 서울시 도심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창조산업 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최근 서울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가 그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는 을지로의 조명상가와 조명기업·디자이너·대학·공공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 을지로 조명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9일 동안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세운대림상가와 을지로 3·4가 일대에서 열린다. 화려한 빛을 뿜어내는 전시작품들은 실제 을지로 조명상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완성됐다. 단추·달·우산 등 친숙한 소재를 다양한 조명기구로 표현한 작품, 키스 해링의 양식을 차용한 작품 등 기발하고 재치 있는 전시물들을 세운대림상가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에는 달려가는 사람을 형상화한 '함께 달리자'도 이번 행사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역동적인 전시물을 통해 힘든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전하고 싶다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을지로 달빛유람'을 통해서는 을지로에 입주해 있는 조형물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작업 스튜디오를 체험할 수 있다. 세운대림상가를 비롯해 을지로 일대에 있는 조명상가들은 '그랜드세일'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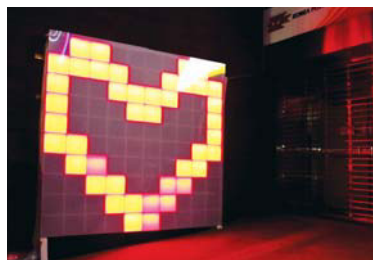
행사 기간 다양한 조명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푸드트럭과 작은 음악회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 점도 눈에 띈다.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와 연계해 을지로 조명산업의 미래를 살펴보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축제 형식을 빌려 첫 행사를 마련하게 됐지만 처음부터 축제를 의도하지는 않았다. 같은 시기 청계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빛초롱축제가 이름처럼 '축제'와 '관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는 을지로 조명상가의 상권 부흥이 목표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디자인팀의 안재선 팀장은 "이번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는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낙후한 산업이 있는 곳의 경제를 다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는 처음이라 전시적인 부분이 강조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행사지만 상인들의 기대도 크다. 안 팀장은 "처음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상가 상인들도 행사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바람은 하나다. '을지로 조명상가의 존재를 알려달라'는 것.

김장기 을지로조명상권연합회장은 "청계천에 있는 상가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조명"이라며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